

INVITATION TO THE ARTS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vol.306 06



표지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마이 퍼스트 오페라 '라보엠'

세계의 공연장
텔 아비브(Tel Aviv)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연 문화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기획전

어린이 예술교육체험 압도적 1위!!! 관객 만족도 9.7 ★★★★★

박진아의

모래랑 빛이랑

모래와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 어린이들의 두뇌발달에 최고!

- 일 시 : 2017. 07. 07(금)~08. 27(일) ※월요일 휴관
- 장 소 : (재)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체험회차 : 평일 10:00/10:30/11:00/11:30/12:00 (평일오전은 단체예약에 한함)
13:30/14:30/15:30/16:30
주말 및 공휴일 10:30/11:10/11:50/13:30/14:30/15:30/16:30
- 입 장 료 : 평 일 11,000원 / 주 말 13,000원 / 단 체 10,000원(10명 이상)
- 입장연령 :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 예 매 : 인터파크 / 티몬 / 쿠팡
- 문 의 : 1899-8418
- 주 최 : (재)부산문화회관, 공감플러스프러덕션



47th

제47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77
J. 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브람스 교향곡 제3번 F장조 작품90
J.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Op. 90



바이올린 성경주 (강원대 교수)



예술감독 오순근 (지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2017. 7. 4 | 화 |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주관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남상왕요양병원 C은행인기금 조성 마에스트로 오순근 후원회
- 입장료 | VIP석 3만원 / R석 22만원 / A석 1만원(학생 50%할인)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문의 | 051-621-4577 www.bso21.com

* 본 공연은 2017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The 61st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곳

문화융성



첼리스트 Alban Gerhardt

제5회 KNN방송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울속도명품콘서트
2017 Cellist 시리즈 IV

오충근 알반 게르하르트

백승태 교향(어머님)

J. Haydn Cello Concerto No.2 in D Major, Hob.VIIb:2

A. Dvořák Symphony No.7 In d minor, Op.70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5시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KNN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 Cheong-Keun Ok



예술감독 김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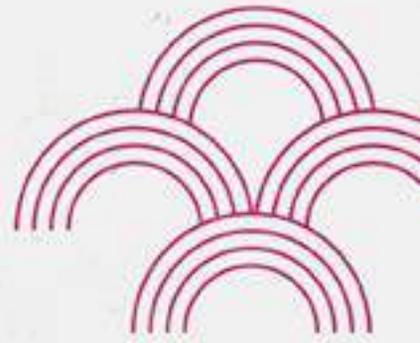
작곡 백승태

복권기금
문화융성
www.lotteryarts.co.k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속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연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국악명품콘서트

[부산을 빛낸 예술인 시리즈 II]



프로그램

1. 국악관현악 [품의 전설]
2.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3. 단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4.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5. 국악관현악을 위한 성악협주곡 [아! 부산이여]

지휘



수석지휘자
이정밀

협연



가야금
신명숙



단소
장영화



피리
이종대



창
박성화



창
송선희

2017. 6. 21(수) 7:30PM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부산문화재단
입장료 | 전석초대 (선착순 무료입장)

주관 | 울속도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 220-5805, 부산시립예술 051) 607-3124



SPECIAL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1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10



18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텔 아비브(Tel Aviv)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연 문화



38

VIEW +
문화가 화제
2017 제 26회 부산무용제
반 고흐 라이브 展



58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10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CULTURE +

- 14 6월 공연 캘린더
- 16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마이 퍼스트 오페라 '라보엠'
- 18 세계의 공연장
텔 아비브(Tel Aviv)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연 문화
- 22 축제 속으로 디토 10주년 기념 페스티벌 '카니발'
- 24 그곳에 가면 효로민락소극장
- 26 테마가 있는 여행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대구 근대문화골목투어

VIEW +

- 32 프리뷰
- 38 문화가 화제
2017 제26회 부산무용제
반 고흐 라이브 展
- 40 리뷰
- 42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7년 6월호 통권 306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시리즈
01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6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프로그램

모차르트 / 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바흐 / 바이올린 협주곡 마장조
모차르트 / 디베르티멘토 바장조
모차르트 / 잘츠부르크 교향곡 제3번
슈트라우스 / 페르페툼 모빌레
슈트라우스 / 천둥번개 폴카

다채로운 앙상블과 특색있는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실내악의 특별한 세계로 안내해줄 세계적인 챔버오케스트라가 부산문화회관을 찾는다.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의 음악애호가들을 위해 마련한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는 6월 30일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를 대표하는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0월 27일 빈 국립 폭스오퍼의 악장 및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6중주 앙상블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11월 1일 일본을 대표하는 원전 오케스트라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등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 3개팀이 부산을 찾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의 화려한 막을 여는 첫 번째 주인공은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로,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지난 2003년 창단한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는 폭 넓은 시대를 아우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챔버 무대뿐만 아니라 오페라, TV, 라디오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탁월한 테크닉과 풍부한 음색을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이 대안 다식이 지휘하는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과정(Diplom), 에센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희정은 지난 2007년 서울과

Great Chamber Series



부산에서의 두차례 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감동을 주는 바이올리니스트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포항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을 역임한 김희정은 현재 카메라타 부산 악장, 충남교향악단 객원악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10월에는 또다른 오스트리아 챔버 앙상블인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가 부산문화회관을 찾는다. 바이올리니스트 베스나 스탄코비치(Vesna Stankovic), 유희승, 비올리스트 페터 사가이쎬(Peter Sagaischek), 첼리스트 마이클 윌리엄스(Michael Williams), 클라리네티스트 헬무트 회들(Helmut Hoedl), 바수니스트 비앙카 슈스터(Bianca Schuster) 등 빈 국립 포크스오퍼의 악장 및 수석단원으로 구성된 관현악 6중주 앙상블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솔로리스트들이 만들

어내는 완벽한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다. 비엔나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에서 거수원과 피아졸라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유럽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겸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헬무트 회들의 작품을 아시아 초연으로 들려준다.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는 조금 더 특별한 공연으로 꾸며진다. 그 주인공은 지난 1963년 설립된 후 원전악기를 통해 바로크 시대 음악을 선보여온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이다. 이들은 클래식 음악의 시초가 되는 '바로크 시대' 음악을 원전악기를 통해 완벽히 재현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무대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텔레만과 코렐리의 명곡들을 비롯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바흐, 비발디의 작품을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과의 협연을 통해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세부 공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02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10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바이올린 / 베스나 스타코비치, 유희승
비올라 / 페터 사가이쎬 · 첼로 / 마이클 윌리엄스
클라리넷 / 헬무트 회들 · 바순 / 비앙카 슈스터

프로그램

베버 / 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거슈윈 / 현악 4중주를 위한 자장가
거슈윈 / 세 개의 전주곡
피아졸라 / 천사의 밀롱가
피아졸라 / 천사의 죽음
헬무트 회들 / 탱고 바리에테
헬무트 회들 / Hommage to Aaron Rhapsodisch



※ 세부 공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03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11월 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타케하루 노부하라 · 협연 / 바이올린 이문경
연주 /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 하프시코드 / 태지 타카타

프로그램

텔레만 / 폴로네즈 협주곡 사장조
코렐리 / 콘체르토 그로소 라장조
텔레만 / 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바흐 / 이탈리아 협주곡
비발디 /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
비발디 / '사계' 중 '가을', '겨울'
바흐 /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The Great Chamber Series



f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Das Grazer Kammerorches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7.6.30 | 금 | 19:30

ff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Vienna Chamber Players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10.27 | 금 |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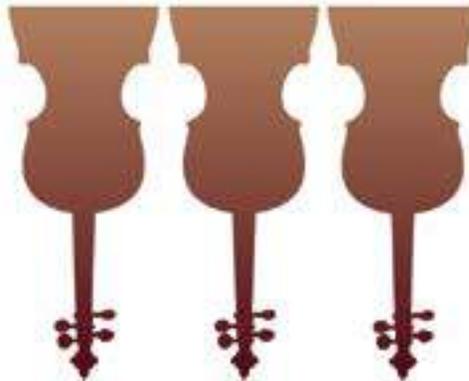
fff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Telemann Institute Japan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7.11.1 | 수 | 19:30

문의 및 예매

051)607-6000 www.bscc.or.kr



06

2017 JUNE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SUN	MON	TUE
<p>전시실</p> <p>제37회 전국서도민전 - 대전시실 6월 2일(금)~6월 7일(수) 문의 : (사)한국서도예술회(441-7081)</p> <p>'영남' 3개광역시 현대작가협회 교류전 - 대전시실 6월 9일(금)~6월 14일(수) 문의 : 성현섭(010-2830-9841)</p>	<p>한국현대미술협회 역대 수상작가 초대전 - 대전시실 6월 17일(토)~6월 20일(화) 문의 : 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p> <p>제22회 Asia 미술대전 - 대전시실 6월 21일(수)~6월 24일(토) 문의 : 윤호철(010-3592-6990)</p>	<p>부산회화제 - 대전시실 6월 26일(월)~6월 30일(금) 문의 : 김명수(010-4138-4847)</p>
4	5	6
<p>대 부산국제합창제 초청 '미국 세인트 올라프 합창단 부산공연' 19:30 2만원·1만원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p> <p>소 아듀오 제2회 정기연주회 'POST : 초여름 밤의 반가운 음악편지' 17:00 전석 5천원 A.Company(010-5246-5651)</p>	<p>대 '앱솔루트 모차르트(Absolute Mozart)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페스티벌 19:30 3만원·2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대 '앱솔루트 모차르트(Absolute Mozart)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페스티벌 19:30 3만원·2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11	12	13
<p>대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희망의 원음 세상의 평화를 노래하다' 15:00 초대 부산울산원음합창단(010-9663-0732)</p> <p>소 원스트링챔버 창단연주회 19:00 전석 1만원 원스트링챔버(010-2378-9863)</p>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18	19	20
<p>대 제5회 부산학생연합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18:00 전석 1만원 부산학생연합오케스트라(010-9984-7169)</p>		
25	26	27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G.Verdi의 Messa da REQUIEM' 19:30 2만원·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WED	THU	FRI	SAT
	1	2	3
	<p>대 가족뮤지컬 '노래하는 인어공주 아리엘' 10:15, 11:15 전석 6천원(단체관람에 한함) 극단 프렌즈(02-6203-6593)</p> <p>소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자원봉사 해단식 17:00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대 2017 Arts Festival 예술제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0회 음악정기연주회' 19:00 초대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514-1232)</p> <p>소 토요일상설무대_부산시립극단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개비의 옛날 옛날에' 16:00 선착순 무료 부산시립극단(607-3123)</p>	
7	8	9	10
<p>대 '앱솔루트 모차르트(Absolute Mozart)'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페스티벌 19:30 3만원·2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클래식, 찰학을 듣다 '노자와 베토벤-怒' 17: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토요일상설무대_부산시립합창단 '우리를 위한 위로의 노래' 16:00 선착순 무료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14	15	16	17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대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7 제34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0회 정기연주회 '임현정과 브람스'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대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내 나라 내 겨레' 19:00 무료 부산하모니합창단(610-1304)</p> <p>소 토요일상설무대_부산시립무용단 '춤의 회화전' 16:00 선착순 무료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21	22	23	24
<p>대 2017 제26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5천원 부산무용협회(632-5116)</p>	<p>대 2017 제26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5천원 부산무용협회(632-5116)</p>	<p>대 2017 제26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5천원 부산무용협회(632-5116)</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아! 겨레여' 17:0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p>소 토요일상설무대_영화와 팝, 재즈가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Cool Classic 16:00 선착순 무료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28	29	30	
<p>대 부산문화 2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V-R.슈트라우스' 11:0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5)</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19:30 전석 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마이 퍼스트 오페라 *My first opera La bohème* 라보엠

나의 직업은 오페라 연출가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묻고 한다.

“연출가 이의주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작품이 뭐예요?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카르멘? 투란도트? 아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라고 특정 작품을 정해야만 하는 일종의 선택 장애에서 살짝 벗어나곤 한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도 첫사랑 오페라가 있고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푸치니의 명작 ‘라보엠’이고 그 작품의 3막 이별장면이 그러하다.

1990년 책 읽기를 좋아하던 고교 2학년 때 당시 나는 서울 소재 영동고등학교의 문예부 서클의 부장이었다. 봄날 학교 교정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문예부 주최의 문학의 밤에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연출을 맡은 나에게 “형, 오페라 보신 적 있으세요?”라는 후배의 한마디는 나의 인생을 바꾸게 했다. “음, 오페라? 본적 없는데...”

어릴 적 클래식을 많이 듣고 나름 잘 안다고 자부한 나는 막상 오페라 실제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자존심이 상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자주 다니며 교향악단의 심포니 연주는 많이 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종합예술인 오페라가 보고 싶어졌다. 절친과 함께 꽃피는 4월 국립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을 보러 장충동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꽃향기가 가득한 장충동 오르막길은 마치 순례를 가는 수도사가 도를 찾는 것 같은 설레임 그 자체였다.

거기에 오페라 ‘라보엠’이 상연되고 있었고, 나는 숨 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푸치니의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버렸다. 실제로 오페라 공연을 처음 본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1막이 끝난 후 무대 전환을 위한 그 짧은 시간은 마치 1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음 장면이 기다려졌다. 2막의 클라이막스 장면인 여자 성악가의 ‘무젯타의 왈츠’와 헤어진 남친 마르첼로가 다시 재결합하는 장면에서 “바로 저거야! 나는 오페라 연출을 할거야!”라고 굳은 다짐을 했다.

이어지는 3막에서 미미와 로돌포의 이별 장면은 나의 감성을 완전히 후벼 파듯 눈물이 뺨을 적셨다. 그들 연인의 ‘우리, 지금 추운 겨울에 헤어지지 말고, 꽃피는 4월에 헤어져요’라는 대사는 너무나 아련하고 쓸쓸하지만 대조적인 낭만적인 선율에 난 할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장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장면이 된다. ‘애, 이게 오페라구나.’ 미미의 마지막 숨이 멈추고, 로돌포가 절규하며 막이 내릴 때 나의 가슴은 뜨거워져 있었고, 나는 친구에게 “연출가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내 인생을 준비할거야!”라고 고해성사를 했다. 18세의 청년은 이렇게 목



1



2



3



4

표를 잡았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 때와 같이 내 나이 만 33세가 되는 해 나는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으로 데뷔를 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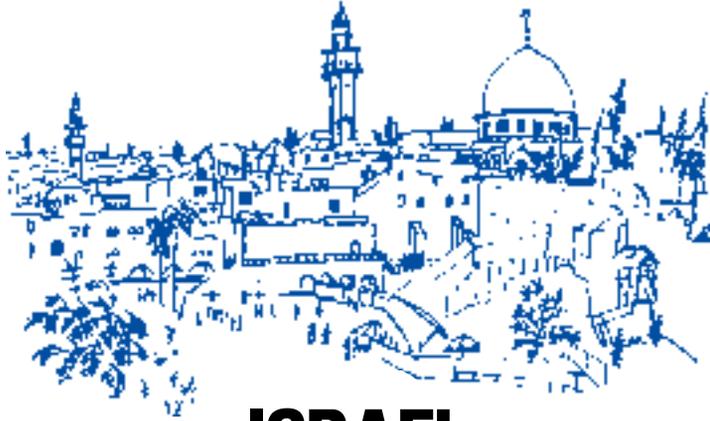
이 후 연출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찾아보게 되었다. '오페라는 음악이니까'하는 단순한 기본상식은 음악대학으로 나를 이끌었고, 입학하자마자 오페라단에서 조연출보로 일을 시작했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배우기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책이란 책은 다 읽으며 문학적 감각과 분석을 하던 시절, 그때 마침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오페라 연출가 양성을 위한 과정이 생기면서 대학원 과정에 진학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니까'라는 생각은 나를 밀라노로 이끌었고 거기서 연극으로 유명한 아르세날레 극장에 들어가 실습을 하게 되었다. 베르디의 도시 파르마에서 오페라 분석의 권위자에게 수업을 받고 베르첼리에 사는, 살아있는 가장 연출가의 밑으로 들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

제식으로 연출가 수업을 받았다.

열심히 유학생생활을 하던 그때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2006년 국립오페라단에서 내게 상근 연출직을 제안한 것이었다.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는 약 16년 전 다짐했던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그해에 '마이 퍼스트 오페라 시리즈'에서 '라보엠'이 올려지게 되고 내게 그 연출의 기회가 오고야 만 것이다.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보다 작품에 집중해 성공시키고 싶은 나의 열정은 고스란히 같은 국립극장에 녹아 들어가 전석 매진과 평단의 호평을 받기에 이르게 된다. 그 이후에도 '라보엠'을 제 각각 다른 프로덕션에서 연출 하게 되었고, 이 작품은 나의 대표작이 되었다.

몇 주 전 부산문화회관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강연에서 '라보엠'을 다루면서 나는 그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의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 참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마이 퍼스트 오페라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고 희망을 선사한 것처럼 나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늘 첫사랑처럼 설레이고 신선한 작품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 언젠가 부산에서 '라보엠'을 공연하고 싶다. 여러분의 마이 퍼스트 오페라는 무엇인가요?



ISRAEL



텔 아비브(Tel Aviv)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연 문화



유대인들이 근대 이후 사상, 철학, 문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 오래다. 음악계도 예외는 아니다. 실상 우리가 아는 음악가들 상당수가 유대인이다.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중, 동유럽계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제임스 레바인, 안드레 프레빈, 마이클 틸슨 토마스, 로린 마젤, 게오르그 솔티, 다니엘 바렌보임, 미샤 마이스키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여기에는 랍비의 토론과 분석을 편집한 탈무드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탈무드는 종교적인 내용 외에도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응용력을 제시한 생활지침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의 클래식 저변과 공연 문화는 어떠한까. 마침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지금 이스라엘 여행 중이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도시라면 텔 아비브(Tel Aviv)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이곳 텔 아비브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이들의 공연문화를 엿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스라



- 1 텔 아비브 퍼포밍 아트센터
- 2 텔 아비브 퍼포밍 아트센터 내 오페라하우스
- 3 하비마 국립극장
- 4 뮤지컬 '레 미제라블' 포스터

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IPO), 텔 아비브 퍼포밍 아트센터(Tel Aviv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오페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공연되는 뮤지컬까지...

먼저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필하모닉은 몇 해 전 내한공연을 한 바 있어 잘 알려져 있다. 시작은 이러하다. 1936년 팔레스티나 교향악단(Palestine Symphony Orchestra)으로 창설되었으나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 이후 지금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텔 아비브에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최초의 연주회를 가진 이후 유진 오먼디, 게오르그 솔티, 레오나드 번스타인, 쿠르트 마주어가 이어 지휘봉을 잡았으며, 현재는 주빈 메타가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동 당시부터 유대계 단원을 중심으로 망명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악단이라 단원들 사이의 자체 결속력이 강한 게 특징이다. 창단부터 텔 아비브를 본거지로 하고 있으며 찰스 브롬프먼 오디토리움(Charles Bromfman Auditorium) 내 로우 콘서트 홀(Lowy Concert hall)에서 연주를 한다. 텔 아비

브 외에도 예루살렘, 하이파와 같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공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IPO: Israel Philharmoni Orchestra)인 것이다.

찰스 브롬프먼 오디토리움은 캐나다인 억만장자 찰스 브롬프먼의 재정적 후원으로 2013년 리노베이션된 공연장이다. 2,482석의 객석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형 평면을 가지고 있어서 객석 어디서든 시야확보에 불편이 없다. 무대부터 객석 후면부까지 이어진 음향 반사판 때문에 공연장의 음향 역시 손색없다. 2016/17 시즌은 어너트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80th 시즌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936년생인 주빈 메타 역시 올해 80세를 맞이했다. 그래서 80회 생일을 맞아 갈라 콘서트가 기획되기도 했다.

찰스 브롬프먼 오디토리움 옆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히브리어 극장 하비마 극장(Habima Theatre)이 있다. 텔 아비브의 중심가 로스차일드 대로가 시작되는 하비마 광장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하비마 극장은 동명의 히브리어 극단으로 시작했고 1958년 이후 국립극장



이스라엘 오페라 '운명의 힘'

으로 명명되었다. 2012년 건축가 람 카르미에 의해 1억불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리노베이션 되었고 객석 수 930석의 로비나(Rovina) 홀을 필두로 4개의 중·소극장이 함께 있다. 마침 방문 기간 중 하비마 극장(극단)이 공연하는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만날 수 있었다. 이미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히브리어로 본다는 점이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특히 1,000석 미만의 로비나 홀에서 올려지는 공연이라 객석 말미에서 공연을 보는데도 무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끝으로 소개할 공연장은 텔 아비브 퍼포밍 아트 센터(Tel Aviv Performing Art Center)이다. 1994년 이스라엘 건축가 야코프 레히터(Yaakov Rechter)에 의해 설계되었고 센터 내에는 이스라엘 오페라(Israel Opera)와 카메리 극장(Cameri Theatre)이 함께 있어서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의 공연을 주요 레퍼토리로 해마다 백만명 이상이 찾는다고 한다.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을 이스라엘 오페라의 공연으로 만났는데 서구의 오페라 프 로덕션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었다. 자국 출신의 지휘자 다니엘 오렌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 오페라는 리손 레지온 심포니 오케스트라(ISO : Israel Symphony Orchestra Rishon LeZion)와 함께 하는데 이 오케스트라는 1988년 이스라엘 중부 구에 위치한 도시 리손 레지온(Rishon LeZion)에 설립되어 1989년부터 이스라엘 오페라의 상주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이스라엘 오페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메이타 오페라 스튜디오(Meitar Opera Studio)이다. 2000년에 설립된 이 스튜디오는 오페라 경력을 준비 중인 젊은 이스라엘 오페라 가수를 대상으로 신인 오페라 가수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일하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이스라엘 오페라는 특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메이타 오페라 스튜디오의 가수가 피아노와 해설을 동반하여 5세에서 10세를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사운드 오브 매직(Sound of Magic)'이라는 유아쇼를 진행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강의 워크숍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해(Dead Sea) 인근 고대 유적지 마사다(Masada)에서는 2010년부터 이스라엘 오페라의 주도로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리허설 공연은 마사다 인근 주민들을 무료 초대하고 있다.

일주일간 이스라엘의 주요 공연장과 문화시설을 돌아보면서 부러웠던 점은 기부, 후원문화 그리고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스템이었다. 대부분의 공연장, 전시실 이름은 후원자나 기부자의 이름에서 가져왔을 만큼 이스라엘의 문화 전반에는 기부와 후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연주자와 곡명 소개로 채워져야 할 공연 프로그램북의 절반이 개별 기부자들의 이름으로 메워져 있는 것도 부러웠다. 유대인 특유의 단결심과 문화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계에서 유대인 파위는 그들의 독특한 교육에서 오는 영민함과 동시에 기부, 후원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금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 클래식에 빠지다 디토 10주년 기념 페스티벌

카니발 *Carnival*

양상블 디토를 중심으로 젊고 재능있는 아티스트들이 매 시즌 다른 테마와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대한민국 대표 젊은 클래식음악 페스티벌 '디토 페스티벌'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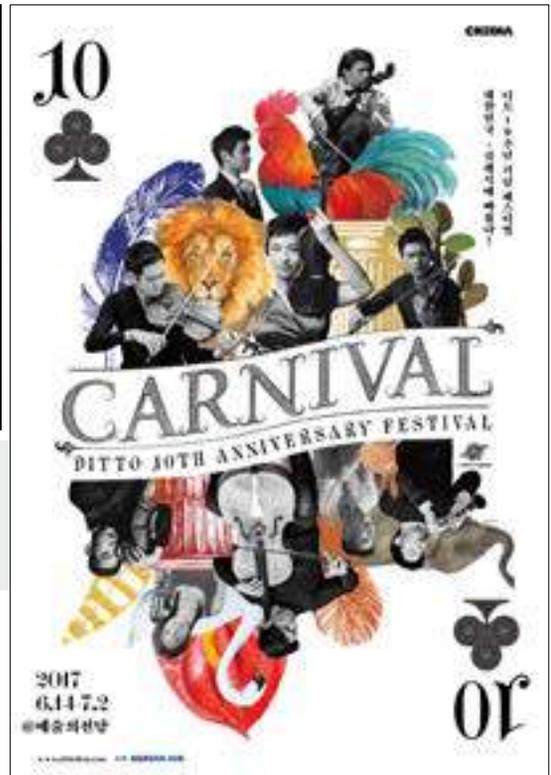
지난 2007년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보다 즐거운 클래식, 클래식에의 공감'을 모토로 시작한 양상블 디토는 2009년 디토 페스티벌로 발전, 관객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으며 매년 성장해오고 있다. 디토 페스티벌의 매력은 젊은 아티스트를 통한 레퍼토리, 관객 개발과 새로운 시도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양상블 디토는 2007년 결성된 후 탄탄한 연주력과 깔끔한 외모로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 큰 몫을 해왔다.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피아니스트 지용,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오보이스트 함경, 베이스리스트 다순 장 등 많은 재능 있는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양상블 디토를 통해 소개됐으며, 현재는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첼리스트 마이클 니콜라스,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양상블 디토를 거쳐간 역대 멤버를 중심으로 한 이번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는 스페셜 콘서트로 열리는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창단 20주년 월드 투어, 필립 헤레베헤 & 상젤레제 오케스트라 창단 25주년 투어를 시작으로 음악감독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스테판 피 재키브, 피아니스트 임동혁, 지용, 첼리스트 고티에 카뮈송, 클래식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그리고 뮤지컬 '헤드윅', '스프링 어웨이크닝' 등을 연출한 연출가 김민정까지 최고의 라인업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우선 10주년을 기점으로 재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양상블 디토는 비주류 장르라 할 수 있는 실내악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던 디토 출발 당시의 초심을 상기하고 지난 10년간 관객들로부터 받았던 뜨거운 열정을 관객들에게 돌려준다. 그 첫 번째로, 새로운 디토를 위해 젊은 아티스트를 대거 영입, '디토 뉴 제너레이션'의 시대를 시작한다. 2015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없는 2위인 마성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첡(Yu-Chien Tseng), 한국인 최초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 우승자인 첼리스트 문태국, 2016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우승자 김한 등이 바로 그들로, 6월 21일 '디베르티멘토' 무대에서 양상블 디토와 호흡을 맞춘다. 특히 올 여름 스테판 피 재키브에 이어 양상블 디토에 새롭게 합류하게 될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첡은 7월 4일 한국 데뷔 리사이틀 'Reverie' 무대를 갖는다. '베니'라고도 불리는 유-치엔 첡은 올해 23살이라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놀라운 테크닉을 갖추면서 관객들이 눈길을 사로잡아왔다.

'살아 있는 전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함께하는 10주년 갈라 콘서트 '디토 파라디소'는 한국 클래식 역사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젊은 세대의 클래식 아티스트에게 영감 그 자체인 뮤즈 정경화는 디토의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임동혁, 리처드 용재 오닐, 문태국, 성민제와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어'를 연주한다. 디토 페스티벌에서만 가능한 최고의 콤비로 기획된 '그랑 듀오 시리즈'에



6월 14일(수)~7월 2일(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레디아 02-318-4301~4, www.dittofest.com

- 1 리처드 용재 오닐 2 정경화 3 임동혁 4 유치엔첸
 5 스테판 피 재키브 6 지용 7 문태국

서는 끼로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스테판 피 재키브 & 지용의 '디어 클라라', 클래식 기타의 영원한 뮤즈와 깊고 진한 비올라의 만남, 리처드 용재 오닐 & 무라지 카오리의 '발라드', 역대급 카리스마 콤비 임동혁 & 고티에 카뮈송 '페노메논' 등 역대 디토 페스티벌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 6인이 어느 한 공연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의 피날레는 7월 2일 열리는 패밀리 콘서트 '카니발'. 지난 200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전면을 영상으로 매핑, 클래식 음악과 실시간 비주얼 퍼포먼스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았던 프로덕션의 리바이벌 버전으로 마련된다. 앙상블 디토를 비롯해 디토를 거쳐간 멤버들이 모여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을 더욱 흥미롭게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뮤지컬 '헤드윅', '스프링 어웨이크닝' 등을 이끈 김민정 연출가의 주도하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Program

5월 31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pecial Concert '기욤 크레머&크레메라타 발티카 창단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
6월 14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ran Duo I 스테판 피 재키브&지용 리사이틀 '디어 클라라'
6월 16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ran Duo II 리처드 용재 오닐&무라지 카오리 리사이틀 '발라드'
6월 17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pecial Concert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창단 25주년 필립 헤레베헤&상젤리제 오케스트라'
6월 21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ran Ensemble 앙상블 디토 '디베르티멘토'
6월 27일(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ran Duo III 임동혁&고티에 카뮈송 리사이틀 '페노메논'
7월 01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ran Gala 디토 10주년 갈라 콘서트 '디토 파라디소'
7월 02일(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ran Carniva 디토 10주년 패밀리 클래식 '디토 카니발'
7월 04일(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Gran Debut 유-치엔 쉑 한국 데뷔 리사이틀 'Reverie'



독립예술문화 거점의 노릇들

효로민락소극장

24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30년 넘게 지역 현장을 지켜온 극단 새벽이 2017년 올해 새로운 비상을 준비한다. 그 첫발을 위해 극단 새벽은 지난 2012년 광복동시대를 마감하며 폐관했던 전용극장을 지하철2호선 민락역 인근에 새롭게 마련했다. 그 이름하여 효로민락소극장. 효로민락소극장은 사실 극단 새벽이 지난 2012년부터 준비해온 '효로인디아트홀' 건립에 앞서 건립을 기다려온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관객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극단 새벽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효로인디아트홀은 지역 최초 독립문화공간을 지향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을 건립하기로 한데는 지난 1984년 극단 두레로 시작해 올해로 창단 33주년을 맞는 극단 새벽의 고난했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동안 30년 넘게 지역현장을 지켜오면서 세너치레 문을 닫을 위기도 겪었다는 극단 새벽은 그동안 옮긴 극장만도 10여 곳이 넘는다.

“이사갈 때마다 부수고 짓고 했던 무대 경비만 모았더라도 벌써 극장 하나는

지었다”는 극단 새벽의 상임연출가 이상민 씨. 지금까지 날린 시설비용이 아마 못해도 10억원에 이른다며 씩씩한 웃음을 짓는 이상민 씨는 결국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찌면 무모할 수도 있는 공간 건립에 직접 나섰다. 2012년 광복동에 자리한 소극장 실천무대가 건물주의 두 배가 넘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폐관을 결정하면서 효로인디아트홀 건립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총 예상되는 사업비는 25억원. 극단 새벽이 대출 등을 받아 마련한 15억원에 대안문화연대의 '기억의 방' 출자금 그리고 지

역단체, 예술인들의 연대 출자로 조성된 재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2번 출구 인근에 이미 부지를 마련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건물 이름인 '효로'는 극단 새벽 창단 멤버로 지난 2007년 타계한故 윤명숙 씨의 호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효로(孝露)'는 새벽예술이 상징하는 맑고 투명함과 사람을 사랑한 윤명숙 씨의 뜻을 담고 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지하 1층은 공연장, 지상 1층은 청소년 전용 카페, 2층은 잊어서는 안 될 역사



1 효로민락소극장 입구
2 효로민락소극장
3 효로인디아트홀 조감도

기록물을 전시하는 '기억의 방', 5층은 전문 연극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쓰인다.

효로인디아트홀 건립 추진과 더불어 독립문화예술 전문기획사 '효로인디넷'도 출범했다. 효로인디넷은 앞으로 효로인디아트홀을 거점으로 독립예술창작물을 제작 및 기획하며 부산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매니지먼트사도 운영한다. 효로인디아트홀이 완공되면 체계적인 아카데미 교육을 위해 전문과정인 효로드라마스쿨도 문을 열 계획이다.

효로인디아트홀이 완공되더라도 효로인디아트홀은 본관으로, 효로민락소극장은 2관으로

계속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효로인디아트홀의 첫 삽은 떴지만 완공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단단하게 땅을 고르는 마음으로 효로인디아트홀을 준비해나가면서 당분간 효로민락소극장을 통해 대중과 꾸준히 소통해나가겠습니다.”

극단 새벽은 지난 4월 14일, 효로민락소극장에서 개관식을 가진 후 4월 27일부터 사흘간 극단 새벽 병설 '인디밴드ACT'의 공연으로 개관공연을 가진데 이어 6월 1일부터는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로 개관공연 두 번째 무대를 갖는다.故 윤명숙의 대표작이자 극단 새벽의 레퍼토리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어머니 날 낳으시고...'는 일란성 쌍둥이 영란, 정란의 삶과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 억눌려 살다 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낸다. 이번 무대에서는 윤명숙 씨의 뒤를 이어 배우 변현주가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문의 | 효로민락소극장(245-5919)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대구 근대문화골목투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입하(立夏)도 지난 5월의 둘째주 금요일인 5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의 테마 여행지는 우리나라 근 현대사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대구광역시. 그중에서도 최근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근대문화골목투어'에 나섰다.

여행 전, 갑작스런 비 소식에 행여 답사여행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출발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차창을 스치는 푸른 신록을 바라보며 두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한방을 주제로 한 약령시한의약박물관. 특히 약령시의 역사와 인근 약전골목의 유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전시품과 함께 한의약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정기회원들이 체험한 프로그램은 한방족욕.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방족욕제를 첨가한 족욕기에 발을 담군 회원들은 함께 온 친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여행지에서 즐기는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족욕 후에는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쌍화차 한 잔과 함께 박물관을 관람하며, 전국 3대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300년의 역사를 지닌 약령시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다.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오후 본격적인 골목투어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이 있는 인근 진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길다'라는 경상도 방언 '질다'에서 유래해 '긴 골목'이란 뜻을 가진 진골목은 인근 변화가와는 다른 대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현존하는 대구 최초의 양옥건물인 '정소아과'와 1982년 문을 연 후 대구·경북지역 예술가, 정치가들의 아지트로 사랑받아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된 '미도다방'을 만날 수 있다.

비빔장이 색다른 평양식콩나물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자 이번 골목투어를 이끌어줄 대구의 문화유산해설사 두 분이 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다양한 주제와 테마에 맞춰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총 다섯 개의 골목투어 코스 중 이날 정기회원 가족들이 도전할 코스는 골목투어를 전국 유명 관광지로 만든 가장 인기있는 핵심코스인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 코스이다. '근대문화골목' 코스는 청라언덕에서 진골목까지 이어지는 1.64km 가량의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100여년 전 근대역사가



1

- 1 제일교회
- 2 진골목
- 3 약령시한의약박물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찾는 이들이 가장 많다. 최근 들어서는 테마여행지로써도 정기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아 매년 이곳을 찾고 있다. 보다 알찬 골목투어를 위해 두 팀으로 나뉘어 투어를 시작했다. 이번 골목투어의 출발지인 진골목에는 조선시대 하층민들이 영남제일관문로를 오가던 양반들을 피하기 위해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여성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였으며 우리에게서 작가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의 작품 배경으로도 유명한데, 골목길을 따라 걷다보면 소설 속 이야기가 그려진 벽화도 만날 수 있다. 또 이 곳에는 대구화교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매년 10월 중순에는 '대구화교중화문화축제'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인근에 자리한, 대구에서도 이바지음식 전문시장으로 유명한 염매시장을 둘러보고 회원들이 도착한 곳은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의 고택. 이곳은 이상화 선생이 1939년부터 임종때까지 약 4년간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선생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상화 고택은 인근지역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대구시민들이 고택보전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켜낸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바로 옆에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 선생의 고택도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잠깐씩 흠뻑리는 가랑비를 맞으며 도착한 곳은 서울 명동성당,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한국의 3대 성당으로 손꼽히는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계산성당. 원래는 한옥이었지만 지난 1901년 화재로 전소되면서 명동성당을 건축하고 전주 전동성당을 설계한 프와벨 신부가 설계를 맡아 고딕식 성당으로 새롭게 지었다. 대구에서 현존하는





4



5

- 4 5 계산성당
6 3·1만세운동길
7 김광석다시그리기길

1900년대 유일한 서양식 성당 건축물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 290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산성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3·1만세운동길'을 만날 수 있다. 90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3·1만세운동길'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지나다니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3·1운동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골목길 벽에 부착되어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3·1만세운동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청라언덕과 이어진다. 푸를 청(靑), 담쟁이 라(蘿), '푸른 담쟁이로 덮힌 언덕'이라는 뜻의 청라언덕은 '봄의 교향악이 울려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로 시작하는 가곡 '동무생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언덕으로, 1910년대 계성고등학교를 다녔던 작곡가 박태준이 당시 짝사랑했던 여고생을 생각하며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에는 1899년 문을 연 영남지역의 첫 서양 진료소인 제증원인 지금의 동산병원과 앞선 1898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대구·경북지역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았던 3채의 선교사주택 등 100여 년 전 근대역사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정경 또한 아름다워 드라마 '사랑비', '각시탈', 영화 '오월의 신부', '모던 보이'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아련한 첫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는 가운데 노현식 회원이 부르는 '동무생각'이 청라언덕에 울려퍼졌다.

청라언덕을 마지막으로 골목투어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이번 테마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김광석다시그리기길'로 출발했다. 영원한 객(歌客) 김광석을 추모하며 지난 2010년 대구 방천시장 옆에 조성된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김광석의 모습과 노래가 그려진 벽화와 조형물을 따라 그의 노래들이 흘러나오면서 이제는 전국민이 사랑하는 대구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서른 둘 짧은 생이었지만 추억 속 노래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김광석처럼 이번 대구 테마여행 역시 회원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일정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30	김천 도착, 반곡포도마을 포도따기 체험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중식
13:00	직지사 탐방
14:00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박물관 탐방
15:30	방초정 탐방
16:00	부산 출발

07.14 일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인 직지사를 비롯해 찬란한 문화유적과 절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김천 여름여행

06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곽화진(사하구 하신번영로)	배영귀(남구 석포로)
김성희(해운대구 반송로)	손성희(해운대구 대천로)
문광원(해운대구 해운대로)	윤한오(동래구 총렬대로)
박선영(연제구 과정로)	이은지(부산진구 시민공원로)
박영희(남구 황령대로)	최형석(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 기존 회원

김길만(해운대구 달맞이길)	배창길(중구 초량상로)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이혜수(해운대구 좌동순환로)
김은경(남구 유엔로)	신정애(수영구 수영로)
민영기(해운대구 대천로)	최경자(남구 유엔로)
박용진(동래구 시실로)	최칠수(사상구 엄곡북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6

예술감독 김용철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춤바람 신바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 구(區)문화회관 순회공연



2017

6.16 **금** 19:30

동래문화회관

6.21 **수** 19:30

해운대문화회관

6.23 **금** 19:30

금정문화회관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무용단

입장료 | 무료공연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3121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749-7662

금정문화회관 519-5662

View Plus

June 2017
vol. 306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당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뜨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II '로(怒)'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오충근



피아노 최진석

클래식과 철학의 특별한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받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두 번째 무대가 6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32

지난 2015년 첫선을 보인 후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을 통해 현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온 '노자와 베토벤'은 올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인생의 기쁨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무대인 '희(喜)'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노여움(怒)'을 주제로 한 최진석 교수의 철학 이야기와 함께 온화한 카리스마의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토벤과 베르디, 스트라빈스키, 바그너의 명곡을 들려준다. 청력을 잃은 후, 문학과 철학에 심취하여 '환희의 송가'(실러), '코리올란'(코린), '에그몬트'(괴테) 등의 작품을 작곡했던 베토벤은 '에그몬트'에서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역사 속 인물 에그몬트 백작을 소재로, 나라를 빼앗긴 그의 분노와 탄식,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의 절개와 영웅성을 음악 속에 담았다. 당대 바그너와 함께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히는 베르디는 오페라 '운명의 힘'을 통해서 세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비극적 운명을 그리고 있다. '운명의 힘'은 오페라 이야기보다는 서곡이 더욱 유명한데, 이전의 작품에 비해 주인공들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깊고 풍성해진 멜

로디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명 작곡가였던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스타덤에 올렸던 발레음악 '불새'는 러시아에 전해오는 유명한 전설을 배경으로 한다. 이 곡은 러시아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형식과 화려한 테크닉으로 유명한데, 그중 '카츠제이왕의 죽음의 춤'은 음악적 긴장감이 특히 돋보이는 곡이다. 마지막 무대는 우리에게 친숙한 바그너의 명곡이 장식한다. 낭만적이면서도 숭고한 힘이 느껴지는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은 영혼과 육체의 싸움을 주제로, 정교한 구성을 바탕으로 금과 현이 이루어내는 장엄함이 돋보인다. 이번 무대는 소설과 오페라, 무용 작품 속 인물들의 감정을 담아낸 클래식 명곡들과 동양 철학의 만남을 통해 단순한 '화'의 감정이 아닌, 불의에 대한 분개와 의분(義憤)을 의미하는 '노여움'의 감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지휘자 오충근과 함께 공연을 이끌어온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다. 최진석 교수는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0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브람스

지휘 | 임헌정



바이올린 | 이정선



첼로 | 이강호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는 마에스트로 임헌정이 부산을 찾는다.

6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0회 정기연주회의 객원 수석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지휘자 임헌정은 지난 1989년부터 25년간 음악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을 수상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수장이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이다. 임헌정은 특히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 '말러 신드롬'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함으로써 대작곡가들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과 연주로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985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지금까지 후진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는 임헌정은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을 시작으로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그리고 슬픔과 고독이 담긴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특히 브람스가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과 명 첼리스트 하우스만을 위해 작곡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는 2014 난파음악상 수상과 함께 연주자와 교육

자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소화해 내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정선과 '청중을 사로잡는 정열적이며 완숙한 연주' 등의 격찬을 받으며 독자적인 연주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강호의 협연으로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이자 최고봉에 위치한 정통 브람스의 진정한 매력을 선사한다. 지난 1991년 한국인 최초 워싱턴 국제콩쿠르 1위 입상을 비롯해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연속적으로 입상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이정선은 세종솔로리스트, 금호현악사중주단 멤버로 전 세계에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12세의 나이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음악계에 데뷔한 이후 세계무대에서 독주와 실내악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강호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으며 전미 음악교사협회(MTNA)콩쿠르, 윤이상 국제 첼로 콩쿠르, Penderecki 국제 첼로 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마술피리' 서곡 작품 620
-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 브람스/교향곡 제4번 마단조 작품98

일시 6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지역문화회관 순회공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1회 정기연주회 국악명품 콘서트 '부산을 빛낸 예술인 시리즈 II'

지휘 이정필



가야금산조
보유자 신명숙



판소리
장명화



피리
이종대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7 지역문화회관 순회공연이 6월 21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1회 정기연주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을 빛낸 예술인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신명숙, 중요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출풍류 전수교육조교 장명화,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제1호 이수자 이종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가 출연, 멋과 신명이 넘치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첫 곡은 임상규 곡 창작 국악관현악 '꿈의 전설'로, 역동적이면서도 빠른 템포의 선율로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어지는 곡은 여러 산조 중에서도 고도로 세련된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가야금산조의 전설적인 명인 강태홍 선생의 마지막 제자이자 현재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장으로 있는 신명숙이 막아내기, 놀러내기 등 어려운 기교가 많아 기교파의 총수로 평가받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들려준다.

서도소리 '관산옹마'와 '천안삼거리', '뱃노래', '꼭두각시'의 선율을 주제 선율로,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김희조 곡 '단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수상곡'은 장명화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장명화는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객원교수로 있으며 대금악회 고문, 동아세아 민족음악교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리 명인 이종대는 이번 무대에서 경기, 강원, 영남 일대의 산간지역에서 불리어지던 토속 농요가락인 '메나리조'를 주제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창작한 이강덕 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을 들려준다. 이종대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대구예술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정년퇴임)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속악회 시나위 고문, 한국피리음악연구회 고문,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부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성악협주곡 '아! 부산이여'. 부산을 상징하는 천혜의 절경 해운대를 거슬러 부산항을 시로 한줄한줄 써내려간 차한수 시인의 '아, 부산이여'를 작곡가 김선이 창작한 성악협주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의 노래로 들려준다.

일시 6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607-3124,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아! 겨레어

지휘 이건륜



작곡가 이영조



작곡가 강영화



클래식기타 고충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인 2017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우리 겨레의 소중함, 호국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무대 '아! 겨레어'가 6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단원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윤동주, 김소월, 한용운 등이 남긴 저항시에 조성은, 이건륜, 강영화 등이 영혼을 불어넣은 창작곡 '님의 노래', '서시', '꽃이 먼저 알아', '동행'을 비롯해 원로작곡가 이영조 선생이 1985년 발표한 '윤동주 시에 의한 네 개의 노래', 이건륜 곡 '아리랑 환타지', 태극기의 4괘인 건곤감리를 형상화한 우효원의 '아! 대한민국(건곤감리)' 등 합창과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KBS부산어린이합창단 등이 함께 무대를 열어준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 박미나가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대표적인 한국무용 '살풀이'로 연주회의 막을 올린다. 이어 부산시립극단 부수석 정마린의 시낭송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이 어우러지는 '님의 노래', '서시', '꽃이 먼저 알아', '동행' 무대. 이번 무대를 위해 향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강영화가 고구태 시에 곡을 붙인 '동행'을 새롭게 작곡, 겨레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작곡가 강영화는 이화여자대학교와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음악대학 등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동행'에 이어 이번 무대의 메인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영조 가곡 '윤동주 시에 의한 네 개의 노래'는 윤동주의 시 '서시'와 '무서운 시간', '새로운 길', '별 헤는 밤'을 네 편의 연가곡으로 작곡한 곡으로 1985년 발표되었다. 음악은 상징적이고 웅변적이며 피아노 반주는 시어를 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영조 선생이 직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위해 편곡, 윤동주 탄생 100주년과 시인의 조국애를 함께 기려 본다.

그 외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의 연주로 한국전쟁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OST 중 '지난 기억', 월남전을 소재로 한 영화 '디어헌터' OST '카바티나(Cavatina)',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의 'I Love 동요연곡(이현철 편곡)', '아름다운 나라(한태수 곡)'로 겨레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건륜이 작곡한 '아리랑 환타지'로 아리랑 정신을 일깨운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의 연합합창, 피아니스트 이영옥과 이승윤의 피아노, 송강수, 김영훈의 역동적인 타악연주가 함께하는 우효원 곡 '아! 대한민국(건곤감리)'으로 호국 보훈의 달에 맞는 웅장하고도 역동적인 무대를 열어준다.

일시 6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입장료 전석 2천원

부산시립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Giuseppe Verdi – Messa da REQUIEM



지휘 구천

부산시립합창단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는 국립합창단과 함께 베르디 '레퀴엠'으로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영혼의 울림을 들려준다.

국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구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소프라노 오미선, 한국인 메조 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국립오페라 극장에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오페라 가수 및 솔리스트로 한국과 유럽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진성원, 탁월한 음색과 성량, 영감 있는 표현력을 가진 베이스 박기현이 솔리스트로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탈리아 낭만주의의 두 거장이자 베르디가 존경하던 음악가였던 작곡가 G.로시니와 대문호 A.만조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작곡된 베르디의 '레퀴엠'은 웅장한 규모와 높은 완성도로 음악 사상 가장 기념비적 의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탁월한 음악적 해석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지휘자'로 평가받는 구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국립합창단을 이끌어오고 있다. 구천은 전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광주시립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그동안 전국시립합창연합회 회장(현 운영위원), 한국합창계의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인 (사)한국합창총연합회(현 고문),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현 상임이사)으로 한국합창계를 이끌어왔다. 지난 1973년 창단된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전문 합창단의 효시로, 본격적인 합창예술운동을 위한 선두주자이자 합창음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 최고의 프로합창단이다.

솔리스트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오미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오페라단 상근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탄탄한 음악성과 무대매너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다.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양송미는 오스트리아 그라츠국립음대를 졸업하고 2004년 귀국,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2014년 런던시 페스티벌의 한국 성악가로 초청받은 바 있다. 오페라 '마술피리'의 주인공 타미노로 데뷔한 후 한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테너 진성원은 현재 가천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03년 유럽의 명문 드보르작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최고표현상, 모차르트상, 프라하 국립극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베이스 박기현은 2002년부터 15년째 독일 할레 오페라 하우스의 전속 솔리스트로 지금까지 유럽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일시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R.슈트라우스 편-



해설 조운범

지휘 김주현

소프라노 유성녀

메조소프라노 송윤진

테너 전병호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 네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슈트라우스 편'이 6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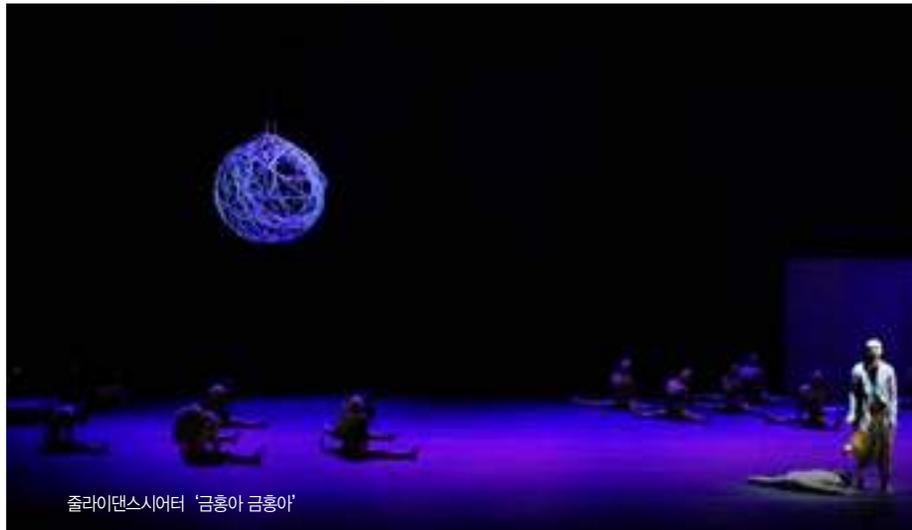
2017년 올해 부산문화회관만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탄생한 '마티네 웰빙콘서트'는 특히 상반기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있는 해설로 관객들을 행복한 오페라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다. 3월 '베르디', 4월 '바그너', 5월 '푸치니'에 이어 6월 '오페라 이야기' 마지막 무대에서는 바그너 이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꼽히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만난다. 독일 후기 낭만파 음악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곡가이자 교향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R.슈트라우스는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비롯해 15편의 오페라 작품을 남겼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장미의 기사', '그림자 없는 여인', '살로메' 등 그의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상반기 마티네 웰빙콘서트를 통해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조운범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재)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 김주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2016년 대한민국 음악대상 차세대 성악가로 선정된 소프라노 유성녀,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하우스 전속 오페라 가수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해온 메조소프라노 송윤진, 오페라, 오페라토리오, 콘서트 전문 연주자로 국내 주요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전병호가 관객들과 만난다.

지휘자 김주현은 이탈리아 페스카라 음악원에서 지휘 디플롬을 취득하고 로마 국립오페라극장 극장피아니스트, 국립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습지휘자를 거쳐 키에티 시립오페라 극장 소속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그동안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도쿄필하모닉, 에콰도르 국립교향악단, 쿠바 하바나 국립교향악단, 중국 쿤밍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다수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서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와 국민대 대학원 성악과, 이태리밀라노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유성녀는 현재 중국 북경 아카데미 초빙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아카데미, 페스카라 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졸업한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은 유럽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귀국, 현재 연세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음대(KA), 에센음대(KE)를 졸업한 테너 전병호는 독일 Deutsche Oper am Rhein International Opernstudio 전속 솔리스트, Theater Hagen 전속 주역가수로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일시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5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줄라이댄스시어터 '금홍아 금홍아'



Dance Project '에게로'



정신혜무용단

2017 제26회 부산무용제

38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중요한 무용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부산발레연구회와 Dance Project '에게로', 정크 무브먼트, 정신혜무용단, 자유무용단 등 5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다.

첫날인 6월 21일에는 부산발레연구회 김한나가 안무한 'compassione'과 Dance Project '에게로' 이용진이 안무한 'Sunrise/Sunset'이 무대에 오른다. '열정적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compassione'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춤을 추기 위한 격렬한 열정을 창작춤사위로 풀어낸다. 인간의 진화에서부터 삶과 죽음, 그리고 하루와 일생, 과거와 현재를 오버랩하여 구성한 'Sunrise/Sunset'은 형식적인 플롯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내면적인 괴로움과 성찰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22일에는 현대무용팀인 정크 무브먼트 김은주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와 정신혜무용단 최지은의 '동살'이 관객과 만난다. 철학자이자 분석심리학자인 자크 라캉의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타인의 시선이 키워낸 욕망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과연 '나

부산지역 창작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이자 경연장인 부산무용제 2017년 무대가 6월 21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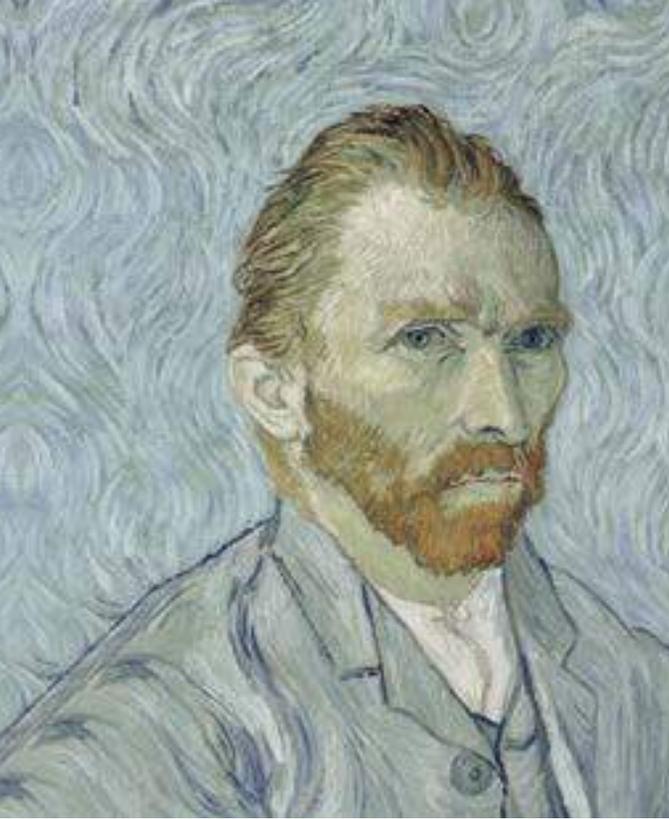
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동트는 새벽녘 푸른 빛줄기'를 일컫는 '동살'에서는 각자의 숲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잊었는지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위한 토로이자 너무 희미해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춤사위로 풀어낸다.

마지막 날인 23일은 마지막 경연팀인 자유무용단의 조현배가 안무한 '사이의 온도'와 지난해 부산무용제 대상작품인 줄라이 댄스시어터의 '금홍아 금홍아'가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무리에서 떨어진 개인의 소외된 마음을 작품 속에 담은 '사이의 온도'는 집단과 개인이라는 확연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감정의 흐름과 속도의 차이를 춤으로 풀어낸다.

축하공연 '금홍아 금홍아'는 시인 이상과 화가 구본웅, 기생 금홍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금홍아 금홍아'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불안과 식민지 지식인의 삶을 몸짓과 생음악, 내레이션으로 풀어내면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밖에 마지막날에는 폐막축하공연으로 부산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부산시민대동춤'이 선보인다.

6월 21일-23일 수-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 부산무용협회 632-5116



Vincent van Gogh

5.11 (목) - 9.30 (토)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일반 1만 5천원, 초중고생 1만 2천원, 어린이 8천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리얼 미디어 741-3007



첨단 기술력과 반 고흐의 감성이 만나

반 고흐 라이브展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가이다. 오늘날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대미술을 무색케 하며 세기를 넘어선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일생을 통해 빈번한 정신적 질환과 근심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37세의 나이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사후에야 알려진 반 고흐는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많은 작가들과는 달리, 20세 후반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유명한 작품들은 거의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그려진 작품들이다. 반 고흐는 900여 점의 페인팅, 1,100여 점의 드로잉과 스케치 등 총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반 고흐 라이브'전은 반 고흐의 작품을 디지털로 만나볼 수 있는 부산 최초의 기획전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독창적인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 영화타이틀, 뮤직비디오, 광고 등에 사용되는 영상으로 이미지, 글자, 사운드 등의 요소를 섞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한 영상) 기술로 원작이 주는 리얼리티의 감동을 전해준다. 특히 기존의 평면 전시와는 달리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션그래픽 작업이 완료된 풀(Full) HD급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빈센트 반 고흐, 그가 남긴 작품을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신개념 미디어 아트 '반 고흐 라이브'전이 9월 30일까지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에서 열린다.

프로젝터를 사용한 디지털 이미지 기반의 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 대형 스크린과 기동, 심지어 바닥을 통해서도 노출되는 반 고흐의 작품들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작품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준다. 과거 유명 화가의 전시가 한정 수량의 원화(原畵) 전시에 그쳤다면, 이번 전시는 원화에 최대한 근접한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통해 공개 작품의 종류와 수량의 한계를 허물면서 반 고흐의 작품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몬드 나무'와 '까마귀가 나는 밀밭', '자화상', '해바라기' 외에도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까지 모두 300여 점의 회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크게 8개의 존(Zone)으로 구성된다. 빛을 다루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다시 태어난 '미디어 아트와 고흐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빛의 화가'라 불리는 인상주의 화가들을 소개한 '고흐와 인상주의', 반 고흐를 사로잡은 다양한 풍경에 담긴 내면의 빛을 그린 '반 고흐와 대자연', 120년 전 반 고흐가 살았던 방이 현대의 기술과 만나 새롭게 펼쳐지는 '반 고흐, 그 마음의 방들', 19세기 파리의 화가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던 일본 우기요에를 소개하는 '반 고흐와 인상파, 동양의 색채에 빠져들다', 반 고흐의 고독과 소외감이 생생히 담긴 '반 고흐의 초상', 동생 테오와의 영원한 우정을 이야기하는 '빈센트와 테오의 편지, 영원한 우정을 그리다', 관객들의 그림과 반 고흐의 그림이 미디어 아트를 통해 만나는 관객참여공간 '반 고흐와 같은 꿈을 꾸다' 등에서 프로젝션 전시와 뉴미디어 인터랙티브 전시, 실제 레플리카(replica, 복제품)와 모니터 스크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월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I-바그너'



◆ 신설령 음악평론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월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바그너를 택했다. 서양음악사에서 새로운 오페라의 시도로 한 획을 그은 바그너이지만 바그너의 오페라를 무대에서 보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일단 공연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베르디나 푸치니의 오페라처럼 공연이 끝나고도 한참이나 머릿속을 맴도는 아름다운 멜로디도 기대하기 힘든 편이다. 그럼에도 만나기 쉽지 않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바그너 오페라를 일부지만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조윤범의 해설과 함께 '탄호이저 서곡'이 시작되었다. 바그너의 곡은 관악이 빛을 발한다. '탄호이저 서곡'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압도적인 사운드로 관악 특유의 웅장함을 뽐내내면서 섬세함도 보여주었다. 바그너의 오페라는 여성의 희생에 의한 구원이라는 주제가 유독 많다. '탄호이저'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도 여성에 의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전개되는데 여주인공이 부르는 '젠타의 발라드'가 이를 반영한다. 이 아리아에서 성악가는 상황 설명을 노래로 하는 한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인 선장이 되어 노래하기도 한다. 소프라노 박현주는 음색의 변화로 이를 잘 표현하였다. '젠타의 발라드'는 선

율이 감미롭지는 않지만 음악 속에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바그너 음악을 지휘자 이동신은 관현악과 소프라노 박현주의 조화로 이끌어냈다. 이날 연주는 오페라 발췌곡이다. 그래서인지 무대와 스크린에 여러 가지 색깔의 조명을 이용해 분위기로 오페라를 상상하게 만드는 센스를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오페라는 16세기 독일의 마이스터징거를 주목하게 하는 '뉘른베르크의 명가수'였다. 화면에는 가사뿐만 아니라 짧지만 해설도 있어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쉽 없이 흐르는 것 같은 노래가 오케스트라 음량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곡이지만 테너 김준연은 아리아 '아침은 장밋빛으로 변하고'를 부르며 명가수 역할을 잘 감당했다. 휴식 후 연주되는 '지그프리트 목가'는 바그너가 아내를 위해 만든 관현악곡이다. 이번 무대는 현악합주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시작한 후 목관 앙상블이 섬세하게 노래를 이어가고, 오보에가 부르는 노래가 짧지만 인상적이다. 18분 정도의 꽤 긴 곡이라는 멘트가 있었지만 좋은 연주로 인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 연주된 곡은 바그너의 '로엔그린' 중 '머나먼 나라에서'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구원이 여인 대신 '백조의 기사'로

부터 온다는 낭만적 이야기를 노래한다. 테너 김준연은 앞서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를 불렀을 때보다 그의 미성이 충분히 돋보이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는 바그너의 '로엔그린'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보다 훨씬 앞서 작곡된 독일 낭만 오페라 작품이기에 성악가도, 청중도 낭만적 감성으로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곡은 소프라노가 부르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이다. 이 곡에서 성악가는 자신의 내면을 얘기한다. 그래서 쉽지 않은 노래이기도 하다.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오페라라는 용어 대신에 3막으로 된 드라마라고 씀으로 음악과 극의 일체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프라노 박현주의 노래가 사랑의 완성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이 곡에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그의 표현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몇 년 전 뉴욕에서 거의 매진되어 어렵게 구한 티켓으로 장장 4시간 반에 걸쳐 관람한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이후 이번 무대를 통해 모처럼 바그너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푸치니 작품을 집중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5월 공연과 바그너만큼이나 무대에서 보기 힘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6월 공연도 유익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김윤선 음악평론가

80년 전통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라디오 프랑스 필)가 5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감동의 사운드를 선사했다. 파리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 프랑스 필은 2000년부터 15년간 정명훈 씨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오케스트라이다. 섬세하고 명료한 사운드로 객석을 사로잡은 라디오 프랑스 필은 기능적으로 완벽한 오케스트라, 천의무봉의 매끄러운 하모니라는 찬사가 무색하지 않은 완벽함을 갖췄다. 또한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노련함과 젊은 마에스트로 미코 프랑크의 매끈하고 세련된 감각의 만남은 환상적인 호흡을 그동안 이뤄왔었으며 그들의 첫 아시아 투어이기에 더욱 더 관심이 집중되었다.

첫 곡은 지휘자 미코 프랑크가 핀란드 출신으로서 조국의 유산을 투영하기 위한 레퍼토리로 시벨리우스의 극 부수음악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중 '녹턴'으로 시작했다. 사랑의 장면을 낭만성 짙은 정서로 목관 파트의 유연한 앙상블로 시작, 현악기 그룹이 섬세하게 물 흐르듯 거침없이 흘러들어 지휘자의 조국인 핀란드의 음악 정서를 완벽히 소화하면서 그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낸 무대였다.

두 번째 무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신예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지휘자 미코 프랑크, 두 거장이 만난다는 것부터가 흥미로웠다.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는 자유로운 재즈 리듬 속에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테크닉과 솔로파트의 긴장감, 재즈풍 속에도 대범하게 휘몰아가는 오케스트라가 서로의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투명한 피아니즘만이 아닌 개성있는 음향을 연출하여 고난이도 곡을 훌륭하게 연주했다. 힘차고 자유로운 1악장, 서정적 블루스로 차분하게 2악장, 야성적이고 리드미컬한 3악장에서 현란한 관현악법과 자유분방한 테크닉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연주였으나, 손열음의 피아노 사운드에 비해 넘치는 풀 오케스트라의 음량이 피아노 솔로를 가린 순간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객석의 갈채 속에 손열음과 세계적인 악장 스베들린 루세브의 흡인력 있는 '썸머타임'을 앙코르로 다시 한 번 객석은 환호했다.

후반부 연주는 라벨의 레퍼토리로 진정한 프랑스 음악의 진수와 오케스트라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라벨의 '머미거위' 모음곡은 동화를 바탕으로 동심을 담은 영감과 프랑스적인 정서가 고스란히 전해지며 짙은 색채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은 정교한 오케스

트레이션을 풍부하고 입체적이며 말하는 듯한 생생한 뉘앙스와 세련됨을 고스란히 표현하여 인상주의 음악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여 진한 전율과 감동 속에 휩싸이게 했다.

1937년 방송국 산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출범한 라디오 프랑스 필은 2차 세계대전과 프랑스 방송계 개편, 6, 70년대 오케스트라 재결성 등 여러 시련을 거치며 지금의 전통과 비범함을 갖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자리에 올랐다. 프랑스 음악의 정체성을 지닌 천의무봉의 오케스트라라는 수식어는 단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80년 전통 속에 상처와 부침을 거듭하며 쌓인 내공이 이뤄낸 결과이다. 프랑스 국민들을 200년 넘게 생각해 빠뜨린 바칼로레아 대학입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신이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 내듯이 국가의 경쟁력은 자유로이 생각하고 문화와 예술을 사유하는 데서 힘이 생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사유가 국민을 스스로 성숙하게 하고 자긍심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라디오 프랑스 필의 감동적인 연주를 통해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가족뮤지컬 '노래하는 인어공주 아리엘'

일 시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15, 11:15 소극장
입장료 전석 6천원(단체관람에 한함)
문 의 극단 프렌즈
02-6203-6593, 02-6205-6593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노래와 율동으로 각색한 가족뮤지컬 '노래하는 인어공주 아리엘'. 왕자를 만나기 위해 문어머녀 우술라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게 되는 인어공주 아리엘. 과연 무서운 마녀로부터 목소리를 되찾아 왕자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들려줄 수 있을까. 독창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로 재미를 더해준 이번 무대는 특히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특별히 제작된 바다 속 애니메이션 영상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17 Arts Festival 예술제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0회 음악 정기 연주회

일 시 6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라벨/라 발스
문가현/Misslich
리스트/헝가리 랍소디 제2번

벨리니/오페라 '청교도' 중 '나는 아름다운 처녀'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등 수록
● 합창지휘/김성배
● 관현악지휘/오정록
● 연주/피아노솔로 이정학, 작곡 문가현, 플루트 이지연, 클라리넷 김규형, 바이올린 최현영, 첼로 황해원, 피아노 이현지, 피아노듀오 최남선, 윤혜원, 소프라노 양수빈, 바이올리니스트 박찬미, 피아노솔로 공경윤

부산국제합창제 초청 미국 세인트 올라프 합창단 부산공연

일 시 6월 4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S석 1만원
문 의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미국을 대표하는 합창단 중의 하나인 미국 세인트 올라프 합창단 부산 공연. 지난 1912년 멜리우스 크리스티안센에 의해 창단된 후 1990년부터 새로운 지휘자 안톤 암스트롱과 함께 27번째 새로운 합창의 세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인트 올라프 합창단은 창단 이후 매년 전 세계 연주여행을 통해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열렸던 합창축제에 미국 대표로 초청받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관객과 첫 만남을 가진 바 있는 세인트 올라프 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르네상스 무반주합창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리랑, 노들강변 등 한국합창곡을 들려준다.

아듀오 제2회 정기 연주회 POST : 초여름밤의 반가운 음악편지

일 시 6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문 의 A.Company 010-5246-5651



젊은 피아니스트 성아람, 김도희, 안버리, 조아라로 구성된 아듀오(A.DUO)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부속 영재학교에서 수학한 성아람은 인제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Jinharmony 합창단 해외 공연 반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수 무대에 서었다.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및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도희는 음악춘추사 '영유작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안버리,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음악학과를 수료한 조아라는 2016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콩쿠르 전체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앱솔루트 모차르트 (Absolute Mozart)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페스티벌

일 시 6월 5일(월)-7일(수)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20인 이상 단체 전화예매 시 20% 할인)
문 의 부산아트메니지먼트
740-5833, 010-3859-2780



모차르트가 작곡한 27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 널리 알려진 12개의 유명 피아노 협주곡을 선곡, 부산을 대표하는 젊고 유능한 피아니스트 12명의 연주로 들려주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페스티벌'.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아트메니지먼트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마련해온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축제 '부산국제음악제'의 안식년을 기념하는 연주로, 세계 무대에서도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황성훈, 송유진, 윤지영, 김정화, 배수영, 심정연, 양진경, 김유진, 신정운, 조혜영을 비롯한 방정애, 한예정 등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와

부산에서 활동하는 실내 오케스트라그룹인 '움 챔버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특유의 사랑스러운 멜로디로 사랑받는 12곡의 피아노협주곡을 사흘에 걸쳐 들려준다.

5일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12번 가장조 K.444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14번 내림마장조 K.449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17번 사장조 K.453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19번 가장조 K.459
● 연주/황성훈, 방정애, 조혜영, 배수영

6일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13번 가장조 K.415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0번 라단조 K.466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5번 가장조 K.503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6번 라장조 K.537 '대관식'
● 연주/신정운, 송유진, 김유진, 심정연

7일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1번 가장조 K.467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3번 가장조 K.488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4번 다단조 K.491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7번 내림나장조 K.595
● 연주/양진경, 김정화, 한예정, 윤지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II '로(怒)'

일 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클래식과 철학의 특별한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두 번째 무대. '노자와 베토벤' 2017년 무대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지난 4월, 인생의 기쁨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무대인 '희(喜)'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노여움(怒)'을 주제로 한 최진석 교수의 철학 이야기와 함께 온화한 카리스마의 지휘자 오종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토벤과 베르디, 스트라빈스키, 바그너의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스트라빈스키/볼새 중 '카츠체이 왕의 죽음의 춤'
바그너/오페라 '탄호이저' 서곡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희망의 원음 세상의 평화를 노래하다

일 시 6월 11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 010-9663-0732



1973년 원불교 부산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출발, 오랜 전통을 지닌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의 19번째 정기연주회. 2002년 부산세계합창올림픽 금상, 2004년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종교음악부문 은메달, 2006년 중국 사면 세계합창올림픽 동메달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원음방송 개국 열린음악회,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내한공연 특별출연, 김해 가야세계문화축제 찬조출연, 서울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합동공연,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도교무/강영은(석타원) ● 단장/한원순(상타원)
- 지휘/이은정 ● 피아노/조은지
- 특별출연/바리톤 광동민, 교무부장단, 원음양상블, 부산중구 시니어코러스, 아란헨스 클래식타양상블

원스트링챔버 창단연주회

일 시 6월 11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원스트링챔버 010-2378-9863



견고한 실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갖춘 바이올리니스트 이정일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의 젊고 열정적인 실력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원스트링챔버 창단연주회. 단체명인 '원스트링챔버' 처럼 모두가 하나된 음악을 위해 정확한 해석과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통해 앙상블의 진수를 들려줄 원스트링챔버는 전문적인 클래식 공연은 물론 양로원, 요양원, 다문화가정 등 예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의 소통도 중요시 여기며 연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프로그램

- 멘델스존/심포니아 제10번 나단조
-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BWV 1043 A 리드/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탄테 모음곡 W. 킬라르/오라와(Orawa)
- 예술감독 및 리더/이정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0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브람스

일 시 6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임헌정의 객원 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0회 정기연주회.

지난 1989년부터 25년간 이끌어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이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지는 임헌정은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을 시작으로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그리고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슬픔과 고독이 담긴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 지휘/임헌정
- 객원악장/신상준
- 바이올린/이경선
- 첼로/이강호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내 나라 내 겨레

일 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010-2593-1651



지난 2003년 창단 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합성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해 온 부산하모니합창단 정기연주회.

외국인을 포함한 60여명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부산하모니합창단은 경주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김강규 지휘자의 지도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2014 뉴욕 링컨센터 초청공연, 2016 에티르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매년 새로운 콘텐츠의 스토리가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온 부산하모니합창단은 특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내 나라 내 겨레'라는 주제로 화려한 조명과 안무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며 부산하모니합창단 출신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강소영이 특별출연한다.

- 피아노/김민선 ● 안무/홍기태

제5회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6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 010-9984-7169



지난 2014년 3월 음악교육을 통해 정서 함양과 단체활동의 협동심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부산, 울산, 경남권 학생들로 결성된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2014년 6월 첫 정기연주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은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는 매년 1~2회 이상의 재능기부 연주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문화소외계층 시민들이 무료로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기획, 마련해오고 있다.

- 지휘/김대영
- 사회/조면주
- 소프라노/왕기현
- 합창/한나라문화재단 부설 동림소년소녀합창단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2017 제26회 부산무용제

일 시 6월 21일(수)~23일(금)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부산무용협회 632-5116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중요한 무용행사로, 올해는 부산발레연구회와 Dance Project '에게로', 정크 무브먼트, 정신혜무용단, 자유무용단 등 5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다.

21일 부산발레연구회 'con passione'(안무/김하나)
Dance Project 에게로 'Sunrise/Sunset'
(안무/이용진)

22일 정크 무브먼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안무/김은주)
정신혜무용단 '동살'(안무/최지은)

23일 자유무용단 '사이의 온도'(안무/조현배)
줄라이 댄스시어터 '금홍아 금홍아'
(축하공연, 2016 부산무용제 대상 수상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아! 겨레여

일 시 6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운동주 탄생 100주년인 2017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우리 겨레의 소중함, 호국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무대 '아! 겨레여'.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단원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운동주, 김소월, 한용운 등이 남긴 저항시에 조성은, 이건륜, 강영화 등이 영혼을 불어넣은 창작곡 '님의 노래', '서시', '꽃이 먼저 알아', '동행'을 비롯해 원로작곡가 이영조 선생이 1985년 발표한 '운동주 시에 의한 네 개의 노래', 이건륜 곡 '아리랑 환타지', 태극기의 4개인 건곤감리를 형상화한 우효원의 '아! 대한민국(건곤감리)' 등 합창무대와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KBS부산어린이합창단 등이 함께 무대를 열어준다.

● 지휘/이건륜(수석지휘자)

부산시립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Giuseppe Verdi -Messa da REQUIEM

일 시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하는 제16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국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구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소프라노 오미선, 한국인 메조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국립오페라 극장에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오페라가수 및 솔리스트로 한국과 유럽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진성원, 탁월한 음색과 성량, 영감 있는 표현력을 가진 베이스 박기현이 솔리스트로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구천(국립합창단 예술감독)

부산문화 2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일 시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부산문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헝가리 집시의 밤'이라는 부제로 꾸며지는 1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미은,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첼리스트 이명진이 출연,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사람이 좋다', '괜찮아요'의 가수 이창휘, '춧볼', '떠나가는 배'의 가수 정태준·박은옥 부부가 출연, 가요 무대로 꾸며진다.

● 지휘/백원석
● 연주/부산OPERA심포닉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6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차세대 연주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연주회 '2017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협연자 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7명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외에도 인제대학교 대학원생 조다은이 출연, 평소 닦아온 뛰어난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특히 다양한 시대에 걸친 작곡가들의 협주곡을 다양한 악기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프로그램

F. Grate/트롬본 협주곡 제1악장
D. Kabalevsky/첼로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49 제1악장
R. 스트라우스/오보에 협주곡 제1악장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

Paul Dukas/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Villanelle
라이네케/플루트 협주곡 작품 283 제1악장
Emmanuel Sejourne/마림바와 현을 위한 협주곡 제2악장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III. Finale

● 지휘/김봉미(수석지휘자)
● 협연/박민균(트롬본, 경상대 4학년)

윤지윤(첼로, 부산대 4학년)
허정훈(오보에, 경상대 4학년)
최우림(피아노, 경상대 4학년)
인상우(호른, 경상대 4학년)
조다은(플루트, 인제대 대학원 재학 중, 외부출연)
박찬석(마림바, 경상대 4학년)
조원교(첼로, 부산대 3학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 콘서트 '오페리아 이야기 IV' -R.슈트라우스 편-

일 시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5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 네 번째 무대 '오페리아 이야기-슈트라우스 편'.

3월 '베르디', 4월 '바그너', 5월 '푸치니'에 이어 6월 '오페리아 이야기' 마지막 무대에서는 바그너 이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꼽히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만난다.

프로그램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오페라 '장미의 기사' 중 '조금 전에 당신이 어땠는지?',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 중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오페라 '장미의 기사' 중 '완고함으로 이 가슴을 굳히고', 오페라 '살로메' 중 '일곱 베일의 춤' 등 수곡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1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일 시 6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다채로운 앙상블과 특색있는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특별한 세계로 안내해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첫 번째 무대.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의 화려한 막을 여는 첫 번째 주인공인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를 대표하는 연주단체로, 지난 2003년 창단 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무대뿐만 아니라 오페라, TV, 라디오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감동을 주는 연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이 협연자로 출연.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KV546
바흐/바이올린 협주곡 마장조, BWV 1042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모차르트/잘츠부르크 교향곡 제3번 KV 138
슈트라우스/페르페툼 모빌레
슈트라우스/천둥번개 폴카 작품 324
● 지휘/데안 다식(Dejan Dacic)

제47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문 의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15 세계음악디스커버리'의 성공적 연주에 이어 올해 '2017 노자와 베토벤'으로 또 다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현재 강원대학교 교수이자 현악앙상블 The Bridge의 예술감독으로 있는 '따뜻하고 유려한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성경주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 '교향곡 제3번 작품 90'을 들려준다.

토요상설무대

일 시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607-3102)

3일 부산시립극단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



꼬마 도깨비 깨비가 도둑맞은 도깨비감투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의 옛날 옛날에'는 우리의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뒤죽박죽 이야기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환상을 심어준다.

● 예술감독/곽종필

10일 부산시립합창단 '우리를 위한 위로의 노래'

프로그램

밥 칠곳/작은 재즈미사
위로와 희망의 속삭임/사랑량(정애련 곡), 아베 마리아(구노 곡), 물방아(김원호 곡), 아베 마리아(루찌 곡)

인생을 담은 합창/알 수 없는 인생, 나는 행복한 사람,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소프라노/남소진, 이정란, 엄남이, 최선희, 김나영, 권순유
- 앨토/손미숙, 박성혜, 김성미, 정은영, 신소은
- 테너/김진영, 최준식, 강종철, 김응태, 강은태
- 베이스/최성규, 문동환, 김창돈, 김태우, 장용균

17일 부산시립무용단 '춤의 회화전'

프로그램

살풀이(출연/김동숙, 오숙례)
한량무(출연/이상원, 허태성)
태평무(출연/강미향, 황선희)
사랑가(출연/김도은, 황동하)
소고춤(출연/이정인, 이화성)
진도북춤(출연/박창희, 박상용)

● 예술감독/김용철



24일 영화와 팝, 재즈가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Cool Classic

현악4중주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리네 나흐트 무지크 중 제악장 '알레그로'

비습/즐거운 나의 집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영화 '겨울왕국' 중 'Let it go'
영화 '장화, 홍련' 중 '돌이킬 수 없는 걸음'
드라마 '하얀거탑' 중 'B-Rossette'
피아졸라/리베르 탱고

금관5중주 프로그램

쌍두취 행진곡(Under The Double Eagle)
티후아나 택시(Tijuana Taxi)
비틀즈/Let It Be
한 걸음 더 가까이(Just a Closer Walk)
오펜바흐/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중 '강강'
필모어/라수스 트롬본
성자의 행진(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뉴욕, 뉴욕(New York, New York)
인스턴트 콘서트(Instant Concert)

음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2017 목요일상설 '꿀밤'
천원의 행복

일 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15일 공연없음, 마지막 주는 28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전석 1천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1일 The Blossom '영화, 클래식을 만나다'
미국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돌아온 6명의 여성 연주자들로 결성된 The Blossom의 무대.

- 피아노/심정자 ● 플루트/김유희
- 바이올린/정다희, 안은지 ● 비올라/김기민
- 첼로/김나래

8일 청년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보사노바 듀오'
대중적인 재즈리듬 보사노바 명곡과 브라질 정통 발라드 삼바칸사오(samba cancao) 스타일로 편곡한 가요, 팝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2일 클래식 라디오 실내악 프로젝트
'In Screen Music'
다양한 장르들의 음악을 대중과 소통해나가는 클래식 라디오의 실내악 프로젝트 무대.

28일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신청곡 콘서트'
관객들로부터 미리 신청받은 신청곡을 새로운 편성과 장르로 편곡해 들려주는 '신청곡 콘서트'.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I

일 시 6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성으로 매 공연마다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리사이틀.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석사 및 Graduate Diploma, 론지음악원 Artist Diploma, 보스톤대학교 피아노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희는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최고의 콩쿨을 석권한 후 이태리 Citta di Cantu 콩쿠르, Viotti-Valsesia 콩쿠르, IBLA 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강의전담 교수로 있는 박정희는 이번 무대에서 피아노의 신약성서라 불리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의 그 첫 무대로 소나타 제8번 비창을 비롯해 제3번, 제22번, 제23번 '열정' 등 네 곡을 들려준다.

2017년 피아노와 함께 떠나는
러시아여행

일 시 6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1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 010-4909-7444



고신대학교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고신피아노 소사이어티(K.P.S)의 2017년 무대. 음악감독 김남숙을 비롯해 선아름, 이한나, 이수미, 허에스더, 박민경, 고태욱, 윤선혜, 정다운, 박보경, 신현희, 김지원이 출연, 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하차투리안, 쇼스타코비치, 카푸스틴, 카발레프스키,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린스키 코르사코프, 아렌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크리빈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연주/선아름, 이한나, 이수미, 허에스더, 박민경, 고태욱(1일), 윤선혜, 정다운, 박보경, 신현희, 김지원, 김남숙, 고태욱(12일)

박소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6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박소윤 010-4584-0400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윤의 피아노 독주회.

현재 울산시 울주군에 거주하며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박소윤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 지역 청소년들이 클래식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음악이 주는 무거움을 덜어내고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 드뷔시/에튀드 제11번
- 베토벤/소나타 제21번 작품 53
- 쇼팽/발라드 제4번 작품 52
- 알칸/에튀드 작품 39 제12번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부산예술가곡 3주년 연주회

일 시 6월 3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가곡 010-3884-4623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창작가곡 활성화에 주력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창단한 부산예술가곡의 무대.

지난 2014년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과 만나온 부산예술가곡은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임정금, 김은정, 이영희, 김삼도, 박순정, 최유진, 조신미
- 메조소프라노/채은정
- 테너/김석수, 안병규, 박근태, 정광부, 신재철
- 바리톤/김성홍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17기 향상음악회

일 시 6월 4일 일요일 오후 4: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강희숙 010-2562-6561



단원 개인의 리코더 연주 기량과 앙상블 능력을 함께 키워 해마다 향상된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청소년 리코더합주단 17기 향상음악회.

리코더 앙상블로 들려주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비롯해 헨델, 삼마르티니, 텔레만 등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리코더 2중주를 17기 단원들이 연주하며, 18기 단원들의 자량 마당과 연주반 단원들이 선사하는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1번'을 대규모 리코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액센트 스트링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액센트 스트링 오케스트라 747-3468



부산국제외국인학교(BIFS) 학생들을 주축으로, ABRSM(영국왕립음악원 인증시험)을 통해 그 실력을 검증받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액센트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무대.

액센트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부산시민공원 기념공연행사, 부산외국인기업가모임 및 해운대 백병원 연주, 보육원 희락원 연주 등 음악과 연주를 매개로 사회 각층의 사람과 소외된 이웃을 만나 다양한 무대경험을 통해 연주단체로서 내실을 다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을 통해 사회와 교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는 취지로 공연 수익금 전액을 가덕도 소양보육원에 기부한다.

- 지휘/이리희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3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7천원, 청소년 3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7월 장예지 플루트 독주회 'TRÄUMEREI'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활발한 연주활동과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플루티스트 장예지 독주회.

'몽환을 테마로 한 이번 무대에서는 솔로무대를 비롯 피아니스트 이은정, 기타리스트 김경태와의 앙상블 무대로, 마치 한밤의 황홀한 꿈을 꾸는 듯한 시간 속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14일 쉘블리 트리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파리의 연인'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비올리스트 김기민, 피아니스트 이해경으로 구성된 쉘블리 트리오의 무대.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의 흔치 않은 앙상블의 조화로 다양한 레퍼토리와 색다른 연주를 보여주는 쉘

성민주 피아노 클래스 콘서트

일 시 6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성민주 010-3815-3190



이화여자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성민주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콘서트.

김현진, 박예진, 황서영, 허지승, 김빛나, 강혜림, 서기원, 권소현, 남예진, 김혜원, 김예민 등 11명의 음악도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소나타 라장조 KV 576
- 드뷔시/아라베스크 제1번
- 바흐/인벤션 제5번 나단조 BWV 801
- 쇼팽/에튀드 작품 10 제10번 내림가장조
- 바흐/토카타 라장조 BWV 912
- 베토벤/소나타 다장조 작품 2 제3번 등 수곡

블리 트리오의 이번 무대에서 프랑스 낭만음악을 중심으로 프랑스 출신 작곡가들의 대중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엄선, 재면곡해 쉘블리 트리오만의 감성으로 들려준다.

21일 김지영, 배수정 듀오연주회

후학 양성과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지영과 배수정의 듀오 무대.

각기 다른 감성을 지닌 두 피아니스트의 듀오연주로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리스트의 '돈 주앙의 회상', 비제의 '독일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28일 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20c Dynamic Flute'

현재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산플루트 앙상블, 플루트 콰르텟 '클랑' 단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주영의 무대.

피아니스트 성민주,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플루트만의 경쾌하고 부드러운 감동과 함께 피아노, 클라리넷과 어우러져 나오는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임재홍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6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원숙한 음악성과 인간애의 조화로 예술혼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리사이틀. 영국 런던 길드홀 음악대학교에서 Advance solo studies 전액장학생으로 바이올린과 실내악 부문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거쳐 Universitat Mozarteum Salzburg에서 1st Diplome, Magister과정,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학위를 취득한 임재홍은 최근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 이자이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등 전곡시리즈를 통해 도전적이면서도 열정 가득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임재홍은 현재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연주자로서 뿐 아니라 교육자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나정혜

지휘자 이성훈의 음악여행 친구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일 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이성훈 010-3586-1938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합창 지도교수, 르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부산가톨릭합창단, 주교좌 중앙교회 세실리아 성가대, 뽀레나 앙상블, 부산 Bravo0버지합창단, 동래구옥셈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성훈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만난 음악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연/소프라노 박정숙, 지휘, 김민정, 문수현, 이도경, 테너 이경춘, 이희재, 강시명, 이영찬, 김용태, 바리톤 이양규, 강도규
- 피아노/권선경, 이소진 ● 사회/아니윤서 김문이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해운대소방서와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제2회 선사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선사인오케스트라 010-5660-3919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행복과 감정을 소통하기 위해 창단한 선사인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선사인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5년 9월 창단된 후 이듬해인 2016년 6월 창단연주회를 가졌으며, 그해 고리 한국수력원자력

수요행복음악회에 초청 받아 무대에 선 바 있다. 지휘자 원준연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무라이 요코, 피아니스트 김찬기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뮤지컬 넘버, 애니메이션 OST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먼트’ 서곡 작품 84
마스네/타이스의 명성곡
스비리도프/눈보라 등 수곡

박환희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도독,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Konzertsolist 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박환희 독주회.

독일 유학시절, 바이로이트 음대 지휘과에서 수학하기도 한 박환희는 이탈리아 노르마 시립아카데미 합창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도 졸업하기도 했다. 귀국 후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정기연주회 등 다수의 음악회에 출연하며 국내 관객과의 만남을 가져온 박환희는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신라대학교 외래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8번 다단조 작품 13 '비창'
쇼팽/발라드 제1번 사단조 작품 23
브람스/소나타 제2번 올림바단조
리스트/발라드 제2번 S 171 나단조

센토챔버스사이어터 정기연주회
세레나데의 밤

일 시 6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지난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은옥을 중심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센토챔버스사이어터 정기연주회. '센토(Sento)'는 '느끼다, 듣다'라는 이탈리아어 동사 'Sentire'에서 나온 말로, 아름다운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듣고 느끼면서 마음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붙인 이름이다.

2011년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을 시작으로 2012년 Promenade in the evening, 갤러리 연주회, 2013년 MBC목요음악회, 밸런타인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획공연을 통해 청중들과 만나는 센토챔버스사이어터는 2014년 아트뱅크코레아 창립15주년 특별연주회, 2015년 '러시아 음악의 밤', 2016년 '정화된 밤' 등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곡으로 실내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묘미를 들려준 바 있다.

**더 하버드 크로코딜로스
2017 월드투어**

일 시 6월 13일 화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2만원
문의 문화협동조합 혼디 010-7242-7950



세계적인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으로부터 '영혼을 어루만지고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 줄 아는 재능을 갖고 있는 그들은 모든 이에게 놀라움을 안겨준다고 극찬을 받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카펠라 그룹 '더 하버드 크로코딜로스(The Harvard Krokodiloes)' 초청무대.

지난 1946년 창설된 더 하버드 크로코딜로스는 텍시도를 끼입은 12명의 학부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4년 동안 12주간의 여름 세계투어를 통해 미국 카네기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 서고 있다. 재즈와 미국가요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아카펠라와 음악이야기로 관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2017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하루키 음악살롱_첼리스트 양욱진

일 시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진중찬 저음이 매력적인 부산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 첼리스트 양욱진의 연주로 마련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6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려라로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후 그동안 '상실의 시대', '1Q84', '해변의 카프카' 등을 발표한 하루키의 소설 속 음악들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욱진은 뛰어난 실력과 절묘한 화음으로 부산 실내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제5화 바리톤 한성권
성가독창회**

일 시 6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성권 010-3885-6600



40대의 늦은 나이에 성악 공부를 시작해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한성권 성가독창회.

부산장로성가단 단원, 멜로매니아 창립회원, 부산음악사랑회 회장, 필로소음악선교회 회장, (사)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명예단장으로 있는 한성권은 2002년 첫 독창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의 독창회와 700여 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으며, 음반 '내 마음의 노래'를 3회 출반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민수연, 최유진, 여성중창단 유빌라타가 특별출연하고 양상을 필로스가 반주를 맡아 성령, 은혜, 기도, 평화, 탄생, 생애, 고난, 부활, 고백, 간구, 소망, 영광 등 다양한 주제의 성가곡을 들려준다.

제1192회 MBC목요일음악회 3인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시그니처 콘서트

일 시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1-0255



제2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한국음악교육협회 회장,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 회장으로 있는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미국 'Templeton University' 아시아지부 실용학부 교수,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회장 및 한국실용음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하모니카 연주자 박기국 등 3인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시그니처 콘서트. 대표적인 실용악기인 기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선율로 화려하지 않지만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찬조출연/고정현(기타, 부산기타페스티벌 단원), 하모니카, 신세계 오카리나 앙상블, 샴 오카리나 앙상블

(사)더솔로이스츠 카메라타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사)더솔로이스츠 카메라타 010-8593-3045



지난 2016년 부산, 경남지역의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들로 창단된 (사)더솔로이스츠 카메라타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클래식에 대한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결성된 (사)더솔로이스츠가 카메라타는 전문예술법인인 (사)더솔로이스츠가 부산 클래식 음악문화의 자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계획한 아마추어 육성 프로젝트로, 더솔로이스츠 소속 전문연주자들이 직접 지도하는 파트연습, 합주연습을 통해 실력있는 아마추어 연주단체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공연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된다.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신시아 트리오 010-2802-1672



부산, 경남 지역 출신으로, 미국 신시아네에서의 인연으로 만나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은정,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첼리스트 김지혜로 구성된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오랜 기간 미국에서 쌓은 기량과 연주경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에는 지난 2015년 금정문화회관, 대구시민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동문음악회, 금정수요음악회 기획연주회, 제8회 김해국제음악제 우수신인연주자, 월드브리지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트리오 콘체르토 협연,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 실내악 부문 파이널리스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다단조 작품 1 제3번
브람스/피아노 트리오 나장조 작품 8

제61회 을숙도명품콘서트 2017년 Cellist 시리즈 IV '오충근&알반 게르하르트'

일 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세계로 향하는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KNN 방송교향악단과 강렬한 음악성과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감, 끝없는 예술적 탐구로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켜 온 첼리스트 알반 게르하르트가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백성태의 창작관현악곡 '고향(어머님)'을 시작으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을 들려준다.

지휘자 오충근은 세계적인 연주홀에 서며 한국 지휘자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킨 부산 출신의 지휘자로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노래하는 첼리스트'로 세계를 누비는 알반 게르하르트는 독일의 영향력 있는 일기지 타게스슈피겔로부터 위엄 가득한 첼로 명장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해설이 있는 가족사랑음악회 경남교원유스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www.gnephil.or.kr 신청)
문의 경남교원유스오케스트라 010-3337-9649



70여명의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경남교원유스 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가족사랑음악회. 지난 2012년 12월 경남교원필하모니의 산하단체로 음악영재들의 음악적 기량과 재능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단한 경남교원유스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아시아오케스트라페스티벌, 일본 오카야마 해외문화예술교류, 한·중문화예술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박종화, 최민성 ● 사회/윤은경

트리오 피아체 리사이틀 '화상'

일 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송정 Cate '뜸'
입장료 초대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학구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신선한 음악적 흐름과 정확한 앙상블을 들려주고 있는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부산의 대표적인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박정희,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오현진으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는

지난 2015년 결성된 후 오세너스 아트홀 초청 연주회, 동남권원자력학원 초청 희망의 음악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 렉처 콘서트, 2015 트리오, 2015 트리오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트리오 피아체 정기연주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등을 통해 학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3번'과 스메타나 '트리오'로 피아노 트리오의 정수와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아트뱅크코레아 초청 기획공연
채재일 클라리넷 리사이틀

일 시 6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3만원, 학생 1만 5천원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2008년 스페인에서 열린 클라리넷 국제콩쿠르 '도스 에르마나스(Dos Hermanas)'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에 입상한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독주회. 미국 5대 오케스트라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활동한 바 있는 채재일은 LA오페라의 종신 수석 클라리넷 주자, 스위스 UBS 베르비어(Verbiere)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주자,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주자, 영남대학교 음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프랑스 부페 크람퐁(Buffet Crampon) 클라리넷의 아티스트, 반도린(Vandoren) 아티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란한 기교와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클라리넷 명곡들을 들려준다.

스트로코타악기양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Legend

일 시 6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스트로코타악기양상블
010-4494-3520, 010-9817-0010



지난 2005년 창단 이후 끊임없는 프로그램 개발과 타악기만의 고유한 음악적 특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무대로 대중과 소통해온 스트로코타악기양상블의 13번째 정기연주회.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스트로코타악기양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통영국제음악제, 부산 실내악페스티벌, 인동전국타악기페스티벌 등 초청무대, KBS 'TV문화속으로', '온스테이지' 등 방송출연을 통해 타악기 음악의 깊이 있는 해석과 수준 높은 연주로 호평받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눈과 귀로 즐기는 음악'을 선사한다.

장효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6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장효진 010-4578-2351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4년 귀국,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장효진 독주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독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효진은 특히 2015년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연주단체 STAY+(스테이 플러스)를 창단, 올해까지 4번의 정기연주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장효진은 인제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음악심리치료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예술치료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피아노 소나타 L.33 나란조 & L.104 다장조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작품 110 내림가장조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카메라타챔버콰이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69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성음악
과 세속음악 II

일 시 6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천주교부산교구 해운대성당
입장료 무료
문의 가톨릭센터 462-1872



르네상스 바로크 전문 합창단인 카메라타챔버콰이어가 함께하는 무대로 올해 탄생 450주년을 맞는, 르네상스의 마지막을 완성하고 바로크음악의 문을 활짝 연 대음악가 몬테베르디의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카메라타챔버콰이어는 지난 2014년부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레퍼토리 연구와 라틴어 디션, 텍스트 연구, 전례와 음악사 등 다양한 연구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지휘/권영옥
- 피아노, 오르간/강자원

테너 전병호 독창회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전곡 연주

일 시 6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전병호 010-5583-4141



부드러운 감성과 세련된 음악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소리의 테너 전병호가 마련하는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전곡 연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음대, 에센 폴크방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Deutsche Oper am Rhein 소속의 International Opernstudio 전속가수, Hagen 시립오페라극장 전속주역가수로 활동하며 오페라가수로 실력을 쌓아온 전병호는 지난 2015년 석세스 어워드 성악부문 대상, 2016년 문화체육부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리트의 역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전곡을 들려준다.

베이스 문동환이 부르는
성가 독창회

일 시 6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문동환 010-4628-3098



매력적인 음색과 중후한 중저음의 철학적 감성을 가진 베이스 문동환이 부르는 성가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동환은 지난 2008년 부산문화회관 우수 단원으로 선발되어 Austria vienna konservatorium Diplom, Austria Wien 21구 Museum 초청독창회를 비롯해 다수 오르토리오와 오페라에 출연한 바 있다. 문동환은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독일가곡연구회 회원, 보이스 싱어즈 남성중창단 단원, 리조이스 중창단 리더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시막, 변명, 시편23편, 주님과함께 등 다양한 성가곡을 들려준다.

Program Guide

지역문화화관 순화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1회 정기연주회 국악명품 콘서트 '부산을 빛낸 예술인 시리즈 II'

일 시 6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울속드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607-3124
울속드문화회관 220-5805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신명숙, 중요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 줄풍류 전수교육조교 장명화,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제호 이수자 이종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가 출연, 멋과 신명이 넘치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임상규/국악관현악 '꿈의 전설'
황의중(편곡)/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김희조(김만석 편곡)/단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이강덕/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김선/국악관현악을 위한 성악협주곡 '아! 부산이여'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6회 프롬나드 콘서트 '추상(追想)'

일 시 6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릴레이 후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일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6월 무대.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황지원, 고신대학교와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중등학교에 출강 중인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양상블 콘티노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영화음악 여행

일 시 6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연주학 박사 출신인 바이올리니스트 미카를 리더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인 비올리니스트 최영화,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인 첼리스트 김혜지,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정은정,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인 퍼커셔니스트 김강우로 결성된 양상블 콘티노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드보르작, 요한 슈트라우스의 클래식 명곡을 비롯해 인기 애니메이션 주제곡과 영화음악을 대형 스크린 영상과 함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강민정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6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영혼을 울리는 음악성과 카리스마의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강민정 리사이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도미, 노스웨스턴대에서 석사과정, 맨해튼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미시간주립대에서 연주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강민정은 어린 시절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는 등 일찍부터 그 재능을 인정 받았다. 이번 연주회는 6월 26일 부산에 앞서 6월 4일 울산, 6월 14일 창원에서 총 3차례 열린다.

프로그램
베베른/변주곡 작품 27
쇼팽/녹턴 작품 55 제2번
쇼팽/발라드 작품 52 제4번
리스트/소나타 니단조

고태욱 피아노 독주회

일 시 6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고태욱 010-7742-0556



고신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고태욱 독주회. 고태욱은 그동안 귀국 독주회를 비롯해 프랑스 J. Micault Meisterkurs 참가 및 연주, 제6회 한국음악협회 신인음악회,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음악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사제음악회 등에 출연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 페가수스 현악4중주단, 루마니아 국립 박하우스 필하모니,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2번 내림가장조 작품 26
무스그르스키/전람회의 그림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보는 음악, 듣는 미술 8音8色 창조콘서트

일 시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3



예술의 반열에 오를 수 밖에 없었던 역사 속 예술가 8인의 숨은 창조적 가치를 미술이 있는 음악회로 풀어낸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6월 무대. 아티스트 네트웍 유클래스 예술감독으로 그동안 100회가 넘는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해온 김이곤의 해설로 바이올리니스트 최은정, 첼리스트 진민수, 피아니스트 방기수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제와 로트레, 포레와 클림트, 비틀즈와 르누아르, 엔니오 모리코네와 피카소, 베토벤과 베르메르, 에릭 클랩튼과 고야, 피아졸라와 알폰소 무하, 이태리민요와 고희 등 '8音8色'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예술적 감성과 인문학적 이성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제3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념
그랜드 갈라 콘서트

일 시 6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학생 1만원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 010-9168-9434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성공을 기원하고 오페라 애호가들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무대를 위해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가 마련하는 그랜드 갈라 콘서트. 기존의 정지되어 있는 듯한 무대가 아닌 색다른 무대 연출과 조명, 무용으로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사할 이번 갈라콘서트에서는 지휘자 김영근, 김현국이 지휘하고 테너 조윤환, 바리톤 정승화, 베이스 박상진, 소프라노 김아름, 김성경, 신선미, 메조소프라노 박소연이 출연, 구노, 로시니, 푸치니, 비제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의 가곡을 들려준다.

제5회 소프라노 박상희 독창회

일 시 6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올웨이코리아 070-8254-1918



문화예술교육(N.P.O) 하임교육 공연이사,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올웨이코리아 오페라단 단장, 경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실용음악 공연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소프라노 박상희 독창회.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노스텍사스대학교 공식 영어성악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상희는 그동안 오페라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라보엠', '나부코' 등 국내외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섰으며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영상 예술대학 뮤지컬과 외래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임현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7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트로싱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브람스 합부르크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성악·기악 반주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IBLA Grand Prize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임현지 독주회.

임현지는 귀국 후 귀국독주회를 비롯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부산두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예원회 정기연주회 등에 서왔으며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시예술영재원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작품 110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 춤곡
슈만/카니발 작품 9

52

연극 | Day

코믹연극 '크레이지투'

일 시 5월 12일(금)-7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서면 AN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미니티켓 1600-1716



정신의학계의 엘리트 유태파 천재 왕진에 박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한 왕진에 박사는 무료로 진행되는 치료 프로젝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중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자신까지 환자로 위장해 5명의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각종 중독증세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강력한 캐릭터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올드미스 닥터 왕진에와의 요절복통 좌충우돌 사건들이 빠른 극 전개와 탄탄한 스토리, 신나는 퍼포먼스로 펼쳐지는 코믹극 '크레이지투-올드미스 닥터 왕'.

연극 '어바웃타임'

일 시 5월 18일(목)-7월 16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00, 4:30, 7:00(6월 6일
오후 2:00, 4:3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썸타다 속타는 이 세상 모든 연애고자들의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연극 '어바웃타임'.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밀당 하수 인호가 그의 새로운 담당 간호사인 밀당 고수 시은의 짝사랑 고백작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어바웃타임'은 요즘 대한민국 남녀의 가장 뜨거운 연애 트렌드인 썸을 다루면서 현실에 있을법한 다양한 에피소드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 원작/박정인
- 각본, 연출/김경미

코미디연극 '보잉보잉'

일 시 5월 25일(목)-7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10년, 2011년 2년 연속 골든티켓어워드 연극부문을 수상하며 장기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코믹연극의 대표작 '보잉보잉'. 세 명의 약혼녀와 만나고 있는 바람둥이 성기는 약혼녀 모두가 다른 항공사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로, 미리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작성해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시간대별로 약혼녀들을 만나다. 하지만 폭풍으로 약혼녀들의 비행 스케줄이 꼬이면서 성기의 세 다리 로맨스도 꼬이기 시작한다. 결국 세 명의 약혼녀가 한집에 모이게 되는데... 과연 성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연극 '이프오리'

일 시 5월 26일(금)~8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프오리'.

10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의 일상이 한 순간에 바뀐다.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때 나타난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지만 막상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이프오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그(그녀), 보내고 남는 그녀(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

● 작 연출/이민혁

효로민락소극장 개관공연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일 시 6월 1일(목)~7월 1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15세 이상 관람,
 5인 이상 관람 시 2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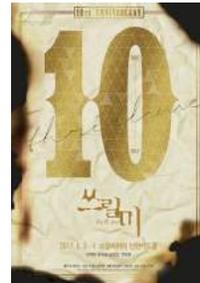
지난 2012년 소극장 실천무대 폐관 후 5년 만에 다시 전용극장인 '효로민락소극장'을 개관한 극단 새벽이 개관기념 공연으로 마련하는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극단 새벽의 창단멤버인故 윤명숙의 대표작이자 극단 새벽의 레퍼토리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어머니 날 낳으시고...'는 일관성 쌍둥이 영란, 정란의 삶과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 억눌려 살다 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낸다.

스릴러 뮤지컬 '쓰릴 미'

일 시 6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6:00,
 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문의 ㈜WSM 1566-5490



1924년 당시 시카고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악명 높은 흉악한 유괴살인사건의 주인공 레이폴드와 로업을 주인공으로 한 스릴러 뮤지컬 '쓰릴 미'.

'쓰릴 미'는 유괴, 살인, 동성애라는 자극적인 소재와 흡입력 있는 전개, 심리게임을 방불케 하는 밀도 높은 심리묘사, 극의 긴장감과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피아노 연주로 극에 몰입도를 높여 최고의 완성도를 만들어낸 심리 스릴러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 시즌 색다른 느낌으로 관객들을 찾는 '쓰릴 미'는 10주년을 맞아 '쓰릴 미'에 가장 많이 참여한 배우이자 주인공 두 역할을 모두 소화한 김재범, 정상윤 그리고 인상 깊은 내면 연기로 호흡을 맞춘 송원근, 이창용이 눈을 땔 수 없는 강력한 무대를 선사한다.

무용 | Dance

최지애 춤

일 시 6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최지애 898-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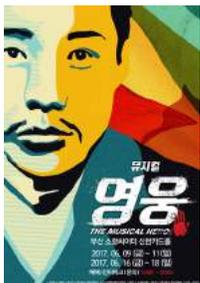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춤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JENA 무용단 단장 최지애의 춤.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제나뮤지컬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는 최지애는 이번 무대에서 순수 전통에 솔로서 이 시대 문화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빛을 춤사위에 담은 창작무용 '빛'을 비롯해 세헤라자데, 동해안 별신굿 세습무인 김석선 선생의 동생인 김계향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춤을 재구성한 '지전', 발레 '라 실피드', 장구춤, 북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선사한다.

뮤지컬 '영웅'-부산

일 시 6월 9일(금)~11일(일), 16일(금)~18일(일)
 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에스제이엔터 1599-2005



지난 2009년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창작 뮤지컬 '영웅'.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영웅의 면모와 생존본능과 싸우며 두려움에 떠는 인간 안중근의 면모

를 한 작품 속에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은 '영웅'은 초연된 그 해 '더뮤지컬어워즈', '한국뮤지컬대상'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작품성과 대중을 함께 인정받았다. 더 탄탄한 내용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원한 안중근' 뮤지컬 배우 정상화와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 최근 뮤지컬배우로도 각광받고 있는 가수 이지훈이 안중근 역에 캐스팅되어 3인 3색의 무대를 선사한다.

국립부산국악원 문화가 있는 날 누가 리어왕을 가장 사랑하는가

일 시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초대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033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중 하나인 '리어왕'을 전통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음악극 '누가 리어왕을 가장 사랑하는가'.

작품의 배경을 조선으로 설정한 '누가 리어왕을 가장 사랑하는가'는 문학과 무용, 연극, 영상이 어우러진 음악극으로, 광대 역할을 맡은 배우 남성진이 유쾌하고 코믹한 몸짓으로 날카로운 풍자와 웃음을 선사한다.

- 작곡, 음악감독/박경훈, 이아람
- 판소리, 소리광대/임현빈
- 연주/박경훈, 이아람, 성시영, 최태영, 전계열, 이정석
- 배우/손성호, 남성진, 신현중, 이영숙, 김지은, 김진영, 원종철, 김성진 외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영화 | Movie

(재)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엘리아 카잔 특별전

일 시 6월 8일(목)~11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캐릭터 드라마의 제왕'이라 평가받는 엘리아 카잔 감독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시네마테크 '엘리아 카잔 특별전'.

2017 영화의전당 야외 상영회&콘서트

일 시 6월 10일(토) 오후 5:00, 13일(화), 21일(수), 28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영화의전당이 5월부터 9월까지 야외극장에서 마련하는 야외 상영회.
10일 두레라움 윈드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회
13일 인사이드 르완상영시간 105분, 15세 이상 관람가)
21일 바긴 어게인(상영시간 104분, 15세 이상 관람가)
28일 싱 스트리트(상영시간 105분, 15세 이상 관람가)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6월 아카데미

일 시 6월 8일(목), 13일(화), 15일(목), 19일(월), 23일(금), 26일(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19일(목) 예술로서의 영화 '대지를 포착하는 영화들의 연대기'
● 강사/오민욱(영화감독)
8일(목) 프랑스영화의 어제와 오늘(1) 프랑스영화의 빛과 그림자
● 강사/박은지(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HK연구교수, 영화학박사)



13일(화) 2017 그랜드아트투어_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윈스터 조각프로젝트, 스위스 아트비젤
● 강사/이성훈(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15일(목) 부산영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모색

콘서트 | Concert

2017 성시경의 축하

일 시 6월 17일(토)~18일(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VIP석 12만 1천원, R석 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8만 8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바비킴과 재즈파크빅밴드의
come together

일 시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소울의 대부', '레게힙합의 대부'라 불리며 파워풀하면서도 애절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바비킴과 깊이 있는 목소리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떠오르는 재즈 보컬 김혜미, 최고의 뮤지션들로 구성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빅밴드로 자리매김한 재즈파크빅밴드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 강사/최윤(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 19일(월)** 광근수의 클래식투어(1) '톡톡 튀는 빛나는 아이디어 콘서트 모음'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 23일(금)** 홍콩 무협영화 이야기 '협객의 전설-신화가 되다'
- 강사/강내영(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 26일(목)** 시네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영화읽기
- 강사/주유신(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교수)
- 29일(목)** 영화, 패션을 디자인하다(4) '영화 속의티파니에서 아침을, 물랭루즈, 어텐먼트' 매혹적인 블랙드레스, 레드드레스, 그린드레스'
- 강사/진경옥(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렉처콘서트]

일 시 3월 15일(수)~6월 14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13주 20만원(지난 강좌 회비 삭감)
문의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663-5311~5314

7일 파두 & 모리나-포르투갈의 블루스, 서아프리카의 망향가
14일 Jazz, Jazz, Jazz - 자유로운 영혼의 울림
● 기획, 해설/에필 최정옥

행사 | Event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양강의실
입장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감상회. 내 삶의 힐링을 위한 클래식음악과 만나는 자리로, 클래식음악을 영상과 함께 알기 쉬운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 1강 이 시대 최고의 미사곡-모차르트의 레퀴엠
 - 2강 전설의 클래식영화 다시보기-베토펜 주제 영화 '불멸의 연인'
 - 3강 여름의 쿨한 음악-헨델의 수상음악 & 왕궁의 불꽃놀이 관현악 모음곡
 - 4강 다시 보는 빅 콘서트- 쓰리(3)테너 콘서트(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 5강 가장 지휘자 비교강상- 카라얀 vs 번스타인의 베토벤 교향곡 8번, 9번
- 해설/김옥균(클래식음악해설가, 음악치료사, 시인)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6월 강좌 없음)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지난 3월 14일 600회를 맞은 '좋은 음악&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6월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존재'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13일(11회) 아름다운 가치
20일(12회) 아름다운의 의미 부여
27일(13회) 이달의 책임가-미를 추구하는 예술가 (너새니얼 호손 지음, 민음사)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9강 '리스트의 음악 탐구'

일 시 6월 13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이번 강좌에서는 굴곡이 많았던 로만티스트 리스트의 생애를 상세하게 살피는 한편 그가 남긴 주옥같은 작품들을 감상해본다.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시마당 제172회 시낭송회

일 시 6월 27일 화요일 오후 6:30
새홍제병원 대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안태봉 회장 010-8374-0626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4강 특별기획 음악과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도시기행

일 시 6월 22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은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 바티칸, 우피치미술관 등 이탈리아 현지 미술관에서 10년간 작품 해설을 해오다 지난 2016년 귀국, 예술강연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고대 로마제국의 발상지 로마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의 발상지인 피렌체, 물의 도시 베네치아, 서유럽 카톨릭 교회의 본산인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로 소프라노 윤경연, 바리톤 유용준 등 두 명의 성악가와 함께 음악여행을 떠난다.

● 피아노/김란

유영국 '절대와 자유'展

일 시 3월 29일(수)-6월 2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소전시실
입장료 일반 3천원, 초중고생 2천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 화가 유영국(1916-2002)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주최로 마련하는 유영국 회고전.

지석철展 부재-시간, 기억(Nonexistence-Time, Memory)

일 시 4월 6일(목)-6월 22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고은사진미술관 독일국제교류처(IFA) 해외교류전 바바바 클렘, 빛과 어둠

일 시 5월 20일(토)-8월 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55-746-0055
www.goemunmuseum.kr

독일국제교류처(IFA)가 기획한 순회전으로, 독일의 사진가 바바라 클렘의 작품을 소개하는 고은사진미술관 2017 해외교류전.

제43회 부산여류전

일 시 5월 29일(월)-6월 7일(수)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서영화 한국화 원로 중진작가전

일 시 6월 1일(목)-6월 7일(수)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 464-3939

'바비 : 더이콘'展

일 시 6월 2일(금)-7월 9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제3회 빵과 장미展

일 시 6월 9일(금)-6월 15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6) '扇面藝術展'

일 시 6월 15일(목)-6월 30일(금)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 464-3939



임상빈 : 에너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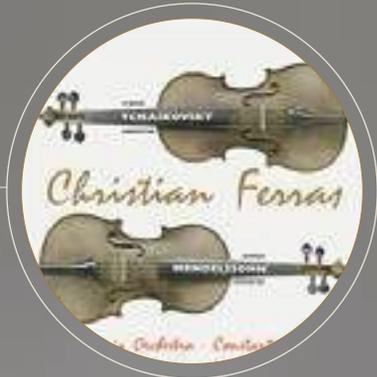
일 시 6월 29일(목)-8월 8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전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제3회 89展

일 시 6월 30일(금)-7월 6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RECORD

크리스티앙 페라스가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크리스티앙 페라스는 신동 예후디 메뉴헨처럼 20세기 전반기를 빛낸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의 대가였던 조르주 에네스쿠의 제자였다. 19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예후디 메뉴인, 파블로 카잘스, 빌헬름 쾰프, 칼 뵘 등과 협연한 최고의 연주자였으며,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도 유명하다. 13살의 나이로 파리 콘서바토리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으며, 14세 때 이미 레코딩 작업을 시작했다. 16세 때 롱-티보 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으로 우승을 했으며, 22살의 나이에 벌써 오야스트라흐, 세링, 프란체스카티 등과 나란히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파리음악원 교수로 있으면서 쾰프, 카잘스 등과 실내악을 협연했으며 피아니스트 바르비제와 콤비를 이루어 많은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경력은 우울증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1975년 은퇴 선언 후, 1982년에 몇 차례 공연을 더 가졌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끝내 1982년 9월 14일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1957년에 남긴 차이코프스키와 멘델스존의 협주곡 녹음은 완벽에 가까운 정교함과 화려한 예술성으로, 비할데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

타로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



▶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타로 최초의 러시아인 레퍼토리 앨범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타로가 선택한 최초의 러시아인 레퍼토리 앨범. 그 첫 앨범은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을 담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세계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위시하여 러시아의 종소리로 유명한 그의 '전주곡'과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는 '여섯 손가락을 위한 작품'까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세계를 총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앨범이다. 특히 매우 드물게 그의 유명한 '보칼리츠'를 오리지널 버전인 '피아노와 소프라노'를 위한 버전으로 담고 있다. 또한 재미있게도 이 앨범에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수많은 알렉산드르들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드르(알렉산더) 타로를 비롯해 지휘자 알렉산더 베데르니코프, 그리고 '여섯 손을 위한 작품'을 위해 투입된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리니코프, 알렉산더 마자르 등 총 4명의 '알렉산더'가 출연한다. 이 앨범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알렉산더'가 아닌 인물은 또 유일한 여성이기도 한 프랑스의 신성 소프라노 사빈 드비엘이다.

임현정(HJ Lim)-베토벤: 유명 피아노 소나타 모음



▶ 오늘날 피아니스트 임현정을 있게 한 베토벤 피아노전집 베스트 앨범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파격적 EMI 데뷔앨범이었던 베토벤 피아노 전집(8CD)을 새롭게 편집한 1CD 베스트 앨범이다. 지난 2011년 당시 EMI 클래식 아티스트 담당 부사장이었던 '앤드류 코넬'은 휴가차 들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임현정의 라벨과 스크리아빈 연주를 듣고 무대 뒤로 찾아가, 그 날 연주한 프로그램 그대로 레코딩을 제안한다. 임현정이 그의 제안 대신 베토벤 소나타를 내겠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데뷔앨범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이 되었고 오늘날 피아니스트 임현정을 있게 만든 레코딩이 되었다. 이 앨범은 총 30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가장 유명한 4곡의 소나타 '비창', '월광', '발트슈타인', '열정을 수록하고 있다(총 수록시간 약 1시간 20분). 한국 최초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 한국 최초 아이튠 클래식 차트 1위를 석권했던 임현정의 강한 개성이 드러나는 베스트 음반으로, 영국의 유력 일간지 '텔레그래프'로부터 '잃어버린 베토벤 소나타'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되찾아준 비아그라같은 연주'라고 극찬받은 앨범이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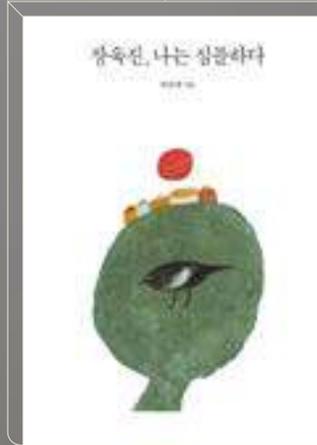
BOOK



공방 예찬

이승원 지음 / 천년의상상 / 300p / 1만 4천 800원

〈세계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 〈소리가 만들어 낸 근대의 풍경〉 등의 책을 쓰면서 옛사람들의 삶을 다루던 인문학자가 공방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을 담아 책을 펴냈다. 그는 오랫동안 100여 년 전 근대를 탐사하며 문화연구에 집중해온 연구 노동자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목공방과 가죽공방을 접한 뒤에 나무를 다듬고,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어딘가에 매인 것이 아니었기에, 공방에서 손을 쓰는 일에 푹 빠질 수 있었다. 그 마음을 그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서른에서 마흔으로 달려가던 시절, 불현듯 공방이 내 삶 한 가운데로 달려왔다. 나는 그 우연한 마주침을 피하지 않고 즐겼다. 공방에 다니며 나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다가올 노년을 상상하기도 하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때론 슬펐다.” 그는 나무꾼도 갖바치도 아니지만 기구와 가방을 만든다. 가장 원초적인 근육을 움직이면서 창조적 노동에 참여하는 희열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정한 기쁨으로 여긴다. 공방에서 포착한 일상의 소소한 단면, 장인들의 세계, 중년의 시간에 대한 성찰들을 담아낸 이 책은 만드는 즐거움과 그 안의 삶을 보여준다.



장욱진, 나는 심플하다

최중태 지음 / 김영사 / 192p / 1만 4천 원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장욱진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개한 책. 장욱진은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로 손꼽힌다. 대중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며 기이한 인생을 살다 간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장욱진과 오랜 시간 사제 간의 사귀음을 가져온 최중태 서울대 명예교수가 스승 장욱진의 이야기와 그의 예술에 대한 평가를 풀어놓는다. 86세의 원로 미술가가 회상하는 스승의 모습은 1979년부터 최근까지 40년에 걸쳐 쓴 글들에 담겨 있다. 이 책으로 다시 묶여졌다. 장욱진 선생과의 내밀한 추억, 그를 추모하는 글, 장욱진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 그리고 장욱진을 떠올리게 하는 저자 자신의 예술론 등이다. “나는 심플하다.” 장욱진은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면 이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단순한 삶을 추구했고, 극도로 단순한 삶을 살았다. 번잡한 서울을 떠나 외진 곳을 찾아 들어가 화실을 만들어 작업을 이어갔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고, 그림 그리기를 마치면 술을 마시러 갔다. 오로지 그림에 몰두한 삶이었고, 부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예술가의 삶은 책에서 다시 만나본다.



엄마의 영화관

강안 지음 / 궁리 / 276p / 1만 5천 원

동화작가이며 영화 칼럼 연재,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인문학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가 엄마의 마음으로 선별한 서른한 편의 영화를 소개하는 책. 영화광 남편과 함께 쓴 전작 〈청소년을 위한 추천영화 77편 1, 2〉 출간 이후, 저자는 책에 소개된 영화를 보며 가족 간 대화의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저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저자는 영화를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체라고 말한다. 영상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데다 영화를 보는 것은 심리적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다. 또한 아이들이 세상을 열어가는 데 영화만 한 유용한 매체도 없다. 영화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영화를 보다보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을 틔우게 된다. 영화는 짧은 시간 동안 다각적인 생각과 총체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은 영화를 소개하며, 각 영화마다 토론하고 의논해볼 거리를 실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유엔평화기념관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기념관이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10일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재)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기념관은 공동업무 제휴를 통해 양 기관이 콘텐츠를 이용한 공동사업 개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타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사업에 상호지원해나가기로 협약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재)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기념관은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문화회관 어린이날 기획 공연 '딱다구리 음악회'와 유엔평화기념관 '2017 UNPM 어린이날 평화 한마당'을 제휴하면서 첫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유엔평화기념관을 비롯해 부산남구청,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 등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에 자리한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간 연계사업을 벌이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석포교회 정기회원 단체가입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가 단체가입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이 병원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정기회원에 단체가입 한데 이어 석포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특히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석포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단체가입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을 찾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올해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기존 회원제도보다 더 많은 할인매수와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정기회원 가입이 계속 늘고 있다.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2기 수강생 모집



1920년대 우리 근대 동요의 태동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동요곡들을 만나는 신나는 동요세상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 대상 : 초등학생 및 학부모 50명
- 일정 : 6월 3일, 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4회차 모두 참여 시, 수료증 발급)
- 장소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지하1층)
- 수강료 : 무료

- 접수기간 : 5월 22일(월)~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게시판에 글 게재
- 문의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담당자(051-607-6062)

부산시립예술단 6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6월,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관현악단은 6월 2일 사직야구장을 시작으로, 15일 부산시청 대강당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23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홀 '제19회 무연고, 홀로노인을 위한 위로잔치', 28일 부산박물관 강당 '부산박물관 로비콘서트'를 통해 우리 멋과 신명이 넘치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6월 21일에는 2017 지역문화회관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제191회 정기연주회 '부산을 빛낸 예술인 시리즈' 두 번째 무대를 갖는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우리 춤의 멋과 신명을 전하는 구(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춤바람, 신바람'을 6월 한 달간 세차례 펼쳐진다. 6월 16일 동래문화회관을 시작으로 21일 해운대문화회관, 23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지난해 구(區)문화회관 순회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과 '봉산탈춤' 중 미 알과장을 재해석한 '늙은 여자' 등을 무대에 올린다.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은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은 아늑 작품으로,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이다.

부산시립극단은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로 부산 전역에서 8차례 공연을 갖는다. 6월 9일 사회복지법인 '선아의 집'을 시작으로 10일 연제도서관, 13일 뇌병변복지관, 14일 부산시청 로비콘서트, 15일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17일 소화영아재활원, 27일 반송도서관, 28일 부산광역시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찾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가족인형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적'에는 지난 5월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 연극 체험페스티벌' 무대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우리의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뒤죽박죽 이야기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환상을 심어주는 작품이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카고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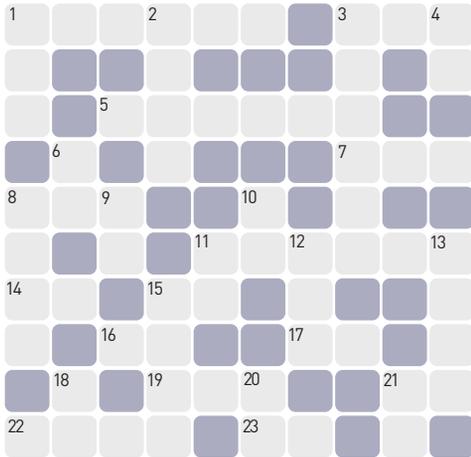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이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시카고시에서 주최하는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기념 부산데이 행사'에 참가한다.

'부산-시카고 자매도시 10주년 체결 기념행사'는 부산시의 자매도시인 시카고가 펼치는 자매도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자매도시 체결 이후 부산시가 매년 참가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6월 5일 시카고로 떠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6월 7일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서 열리는 '자매도시 10주년 체결 기념 부산데이 행사'에 이어 9일 '부산정 담벽 준공식'을 위해 월링시 가설무대에 선다. 지난해 부산시가 월링시에 자리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앞에 세운 '부산정'은 한국 전통의 날렵한 처마와 오색의 단청이 아름다운 정자로, 지난해 11월 30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진 바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 민속춤인 동래학춤을 비롯해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은 '대장금', '창부타령', '인연', '타이타닉', '사랑과 영혼', '웃게 하소서'로 시카고 시민들을 비롯한 교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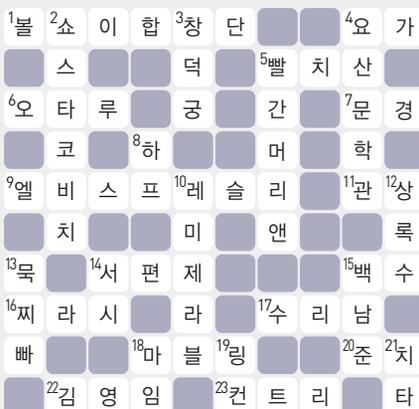
가로 열쇠

- ① 클래식과 철학의 특별한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오고 있다. 6월 10일에는 '노여움(怒)'을 주제로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진다.
- ③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이 계기가 되어, 1991년 1월 17일~2월 28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3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 쿠웨이트를 무대로 전개된 전쟁.
- ⑤ 다채로운 앙상블과 특색있는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실내악의 특별한 세계로 안내해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6월 30일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0월 27일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11월 1일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등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 3개팀이 부산을 찾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⑦ 햇볕이 나 있는데 잠깐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 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서쪽에 자리한 섬으로, 다양한 여장과 풍부한 어족으로 어업이 발달했다. 조선 시대에는 주로 죄인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로 유명했다.
- ⑩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작품의 배경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특히 연말에 자주 공연된다.
- ⑭ 글씨나 그림을 완성한 뒤 저자의 이름, 그린 장소, 제작 연월일 등을 적어 넣고 도장을 찍는 것.
- ⑮ 스위스의 수도.
- ⑯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로 시작되는 김말봉 작사, 금수현 작곡의 한국가곡.
- 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
- ⑲ 조선시대의 형구. 공작의 일종으로,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죄인의 불기를 치는 데 사용했다.
- ㉑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에서 지체 없이 재빠른 움직임으로 상대의 허점을 공격함.
- ㉒ 스웨덴 그룹 'ABBA'의 노래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제목인 ○○○○는 이탈리아어로 놀라움이나 괴로움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㉓ 고귀한 신분의 남자와 평범한 시골 여자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과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도 잊지 못하는 사랑을 그린 고전 발레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

세로 열쇠

- 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알프레드 ○○○이 1895년 작성한 유언에 따라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 ② 예루살렘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구릉지대에 있는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그리스도교의 순례지이다.
- ③ 난파당한 갤리버가 여러 나라를 표류하면서 겪는 기이한 체험을 그린 영국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1726년작 풍자 소설.
- ④ 전라북도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자 전라북도청의 소재지.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에 선정되었으며, 매년 5월에는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 ⑥ 2017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은 봉준호 감독의 최신작.
- ⑧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흠어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경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악물을 복용하는 것.
- ⑩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민속 음악.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Fatum'에서 유래한 말로, 스페인의 지베 등 임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 ⑪ 나팔꽃 모양의 금관악기.
- ⑫ 꿩의 암컷. 수컷은 장끼라고 부른다.
- ⑬ 개봉발레의 불빛과 눈(雪)빛으로 글을 읽어 가며 이룩한 성공이란 뜻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갖은 고생을 하며 부지런히 학문을 닦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⑮ 한때 지중해 전역에 세력을 떨쳤던 해상공화국의 요지였으며, 오늘날에는 주로 운하, 예술, 건축과 독특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
- ⑯ 이탈리아의 수도.
- ㉑ 전통혼례에서 새색시가 단장할 때 이마 가운데에 연지로 찍는 붉은 점.
- ㉒ 교훈이나 풍자를 하기 위해 어떤 사실을 비유의 방법으로 서술하는 간결한 관용어구.

지난호 정답



5월호 퍼즐 당첨자

- 엘로인플라워** 유은주(수영구 수영성로), 조윤희(해운대구 장산로)
-
- 공간소극장** 김동진(부산진구 중앙대로), 박상미(해운대구 우동2로), 서정주(남구 유엔로)
 손영일(동구 중앙대로), 유은주(동구 성남이로)
-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김동우(동래구 온천천로), 박상규(강서구 녹산산단로), 이지훈(해운대구 대천로)
 정진성(부산진구 동평로), 홍수연(중구 망양로)
-
- 큰집식권** 김은주(동래구 총렬대로), 박상규(남구 장고개로), 장윤정(부산진구 부전로)
 최정아(남구 유엔로), 최진희(해운대구 장산로)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7년 예약 가능한 기획공연입니다.

※ 연주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대권 좌석은 S석 기준에 한함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5)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초청공연

🕒 5월 20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6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모차르트/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KV546
바흐/바이올린협주곡 마장조 BWV1042
요한 슈트라우스 2세/페르페툼 모빌레 등

- 지휘/데안 다식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 연주/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 8월 8일(화)~9일(수)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토슈즈 대신 스케이팅을 신고 얼음 위에서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전혀 다른 정통 발레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10월 14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힌데미트/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d 단조, Op.47
슈트라우스/영웅의 생애, Op.40

- 지휘/요엘 레비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고도 미도리
- 연주/KBS교향악단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저'

🕒 10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베버/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Op. 34
피아졸라/천사의 밀롱가, 천사의 죽음 외
● 바이올린/베스나 스타코비치, 유희승

- 비올라/페터 사기이첵
- 첼로/마이클 윌리엄스
- 클라리넷/헬무트 회들
- 바순/비앙카 슈스터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 11월 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TWV51:G9
바흐/이탈리아 협주곡 BWV971
비발디/'사계' 중 '겨울', '겨울'

- 지휘/타케하루 노부하라
- 연주/텔레만 실내악단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문신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매수령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대표소 제시)

주의사항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입장권 예매 후 가상계좌입금(기간 내에 미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VIP



연 회 비 10만 원

초 대 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 시 제공)

SPECIAL



연 회 비 5만 원

초 대 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 시 제공)

MEMBER



연 회 비 3만 원

초 대 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 시 제공)
- 비가입 단체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공통 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SMS)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무료주차권(유료 시행 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

BNK부산은행조은극장

공연관람료 **10~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T. 1588-2757

공간소극장

공연관람료 **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수영구 황령대로 497

T. 611-8518

필하모니

식사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8-2592

모차르트

음료 **10%** 할인
※ 식사 등 제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물회품은보쌈

식사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남구 석포로 116

T. 612-5820

드레스ARIA

대여 및 판매 **3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29

T. 515-5796

안경나라(동래점)

전 상품 **20%** 할인
※ 일부품목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동래구 총렬대로 110

T. 505-8987

노벨안경콘택트

전 상품 **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T. 626-8263

여우 헤어스토리

현금 20%, 카드 **10%** 할인
※ 커트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중구 흑교로 16-1

T. 243-0609

대보당한의원

진료비 **15%** 할인
※ 비보험진료(당약, 봉침 등) 진료비,
청정한약 다이어트(홍보단 제외), 공진탕, 경옥고 등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부산진구 골든테마길 14

T. 412-7513

희망클리닉

진료비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 누리빌딩 9층

T. 804-0999

알파신경외과

진료비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T. 807-0114

DISCOUNT COUPON

윤동주 시에 의한 네 개의 노래

아리랑 환타지

건곤감리

동행

이! 거리의이

2017. 6.24(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견륜 | 수석지휘자



최악기 이영조



클래식기타리스트 고흥진

특별출연 부산시립합창단 | 지휘 전진 피아노 이승윤 KBS 부산어린이합창단 | 지휘 김태호 고흥진 | 클래식기타리스트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대금 현영길 모듬북 송강수 피리 박영은 해금 윤해승 가야금 하지희
 부산시립교향악단 | 타악 김영훈
 부산시립무용단 | 장영진, 박미나 사냥꾼 부산시립극단 | 정마린 피아노 이영옥 안무자도 노금선 음악지도 김양자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지휘
- 김봉미
수석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솔로리스트들의
 2017. 6. 29(목) 늦은 7:30 **축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트럼본	박민균 경성대 4학년	호른	안상우 경성대 4학년
첼로	윤지윤 부산대 3학년	플루트	조다은 안제대학교 대학원 1계
오보에	허정훈 경성대 4학년	마림바	박찬식 경성대 4학년
피아노	최우림 경성대 4학년	첼로	조원교 부산대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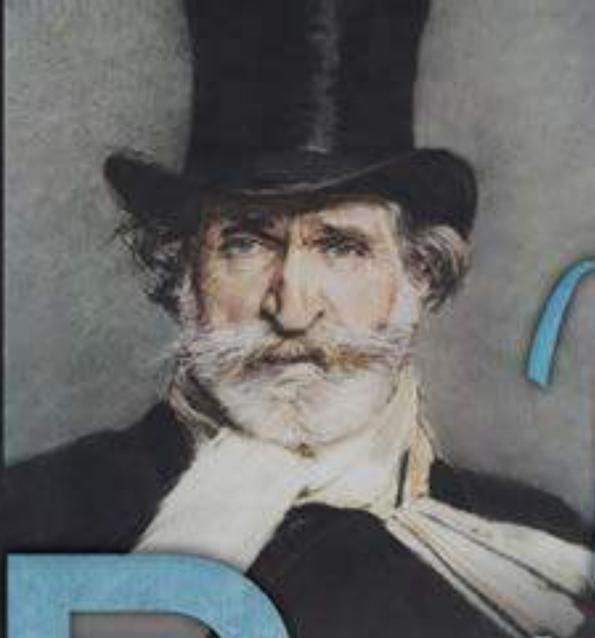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권 > 균일 2,000원

문의 > 051-607-3117

시립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성교차로 방향 100M "7번가리자"정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 - 금 18:30 / 19:00 (19:30분 공연기름, 공연있는 날에 한함)



Verdi

Messa Da

REQUIEM

부산시립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지휘 구천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부산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진성원



베이스 박기현

2017. 6. 27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임진왜란의 원인, 처절한 민중의 고통,
삼포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전쟁대하소설!

THREE
PORTS
TIME

-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이학춘 교수

부지런한 태양은 암울한 현실을 그저 비추는 것이 아니다.
삶의 긍정을 관조한다는 점에서 과거를 통해 오늘에 교훈을 준다.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문광삼 명예교수



총 7권 · 지은이 문성근

현재 1~3권 발행
4, 5권 - 6월 말 발행 예정 / 6, 7권 - 9월 말 발행 예정
구입문의 | 효민디앤피(051-807-5100) · 전국유명서점



SANTORINI

지중해 환상의 섬 산토리니,
손 안의 작은 건축으로 완성된 산토리니 컬렉션은 아치형 건축이 가진
완벽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자와 베토벤

喜

怒

哀

樂

기획공연

클래식, 철학을 듣다

예술감독 오충근

특별출연 최진석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17. 6. 10(토) PM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희로애락



알티렌즈 아시아태평양 레퍼런스 닥터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Surgeon

스마일라식

누네빛안과의원



지휘 김주현



마티네
조윤범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Ⅳ



스트라는 유성녀



마리수모리노 송윤진



테너 전병호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Program

슈트라우스

탈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장미의 기사>	조금 전에 당신이 어마했는지?
<그림자 없는 여인>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장미의 기사>	영고함으로 이 가슴을 굳히고
<살로메>	일곱해살의 춤
사랑	
현정	
<장미의 기사>	장미 수어의 미운장
	내가 견뎠던 일

2017 6.30(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협찬 SHINSEGAE 대우세강인도영 Hk 와이주에어 큐커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안터파크 1544-1555 A.티켓 1566-1369

문의 051 607-6000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EVENT

- 1 신청을 통해 신세계 면세점 Gift Card와 화이주에어 상품권을 드립니다.
- 2 선착순 500분께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